



참여 | 협력 | 영광

# 서울대 총동창신문

개학 1895년  
통합개교 1946년  
창간 1976년 4월 24일

www.snu.or.kr

[월간 제538호] 2023년 1월 15일

02 김중섭 본회 회장-오세정 모교 총장 신년사  
“나눔·창조 정신으로 새로운 변혁 이끌어 갑시다”



04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공짜는 반드시 보복한다”

08 모교 명예교수들의 취미동아리  
MAHA 브레멘음악대 탐방



12 이라미 인바디 대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체성분 분석기, 우리가 만들었죠”

## 4년 만에 모였다, “이제는 함께 나갑시다”

## 지난해 173명 48억 기부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1억원



신년인사회에서 동문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복떡을 잘랐다. 왼쪽부터 이강덕 관악언론인회 차기 회장, 금난새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서정숙 국회의원, 유홍림 차기 모교 총장, 이희범 본회 명예회장, 금진호 텔코웨어 회장, 이부섭 관악경제인회 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중섭 본회 회장, 오세정 총장, 윤세영 SBS 미디어 그룹 창업회장, 조완규 전 모교 총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대순 경남대 이사장, 김인규 본회 수석부회장,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류 진 풍산 회장.

지난해 재단법인 관악회는 총 47억6000여 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1000만원 이상 기부자는 44명이었고, 그중 11명이 1억원 이상을 기부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도 기부금이 답지했다. 한 동문은 익명으로 장학금 2억원을 쾌척했다. 해당 동문은 10여 년째 익명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해왔다. 지금까지 총 기부액수가 6억여 원에 달한다. 또 성기학(무역66-70) 영원무역 회장이 1억원을 기부했다.

자신의 이름 대신 사랑하는 이의 이름으로 기부한 장학금도 있다. 매해 부친 고 조국선(경성사범32졸)의 이름으로 기부해온 조태웅(법학55-60) 동문이 이번에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9600만원을 추가 기부했다. 이미영 태봉산업기술 대표는 남편 고 양인철(기계공학64-68) 동문이 졸업한 공대 장학생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며 5000만원을 보내왔다.

윤성욱(화학생물공학02-08) 동문의 누나 윤성혜씨는 동생을 통해 관악회를 알게 됐으며 1000만원을, 최미정(동양화89-93) 동문의 모친 권희현씨는 딸의 이름으로 결연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또 아시아 유학생을 지원해 달라며 이병훈(경영81-85) 동문이 1200만원, 최재호(전기공학75-79) 동문과 황열순(해양86-90) 동문이 각각 10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해 동문 48명이 매월 정액기부에 참여했으며, 고 이찬교(교육심리55-59)·안시영(조선항공공학58-63)·김기선(독문63-67)·임한조(물리67-71)·김선용(무역68-72)·이상기(서양사81-87)·함태호(식품생산과학97-01)·조성진(AHP 2기)·김원기(GLP 31기) 동문이 목표 기부액을 달성했다.

### 관악경제인회 회원 모집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우리 경제계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동문들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고, 동문 상호 간 네트워크를 통한 원-원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관악경제인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이에 관악경제인회 활동에 함께 해주실 동문님은 사무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활동

- 회원 상호 간 친목과 일체감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 회원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시킬 수 있는 각종 포럼 개최, 자료제공, 회보 발행 등
-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 등

**모집대상**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

- 경제분야에 종사하는 임원 이상
- 언론·금융업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인사
- 정부 또는 경제분야 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임원급 이상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정회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회원

#### 입회절차

① 참여신청 → ② 운영위원회 자격심사 → ③ 격격자 통보 및 회비납부 안내 → ④ 회비 입금 확인 후 입회 완료

**연회비** : 100만원(부회장은 200만원)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3-782712

예금주 : 서울대학교총동창회(관악경제인회)

#### 참여신청 안내

참여를 원하시는 동문님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어,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신청 및 문의 : 02-702-2233, 02-879-8216, 팩스 : 02-703-0755, 이메일 : member@snu.or.kr

관악경제인회 회장 이부섭

별지부록 : 장학금 기부 참여 신청서

### 본회 신년인사회

#### 오찬 겸 행사에 450명 참석

#### 식전엔 금난새 동문 신년음악회

본회는 1월 13일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본회 신년인사회가 열린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450여 명의 동문들이 찾아와 반갑게 새해 인사를 나눴다. 행사에 앞서 금난새(작곡66-70) 동문의 지휘로 신년음악회도 열렸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만찬 행사로 했던 예전과 달리 오찬으로 진행했다. 많은 동문이 일상을 제

치고 찾아온 가운데 한덕수(경제67-71) 국무총리, 이주호(무역79-83)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정숙(HPM 36기) 국회의원 등 공직에 몸담은 동문들이 바쁜 일정 중 참석해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지금의 경제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또 “윤석열(법학79-83) 대통령께서 ‘동문들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라는 인사 말씀 꼭 전해 달라’고 하셨다”고 말해 동문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축사 요약 3면)

복을 기원하며 시루떡도 나눴다. 본회 김중섭(사회사업66-70) 회장과 이희범(전자공학67-

71) 명예회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정숙 국회의원, 모교 오세정(물리71-75) 총장, 유홍림(정치80-84) 차기 총장, 본회 조완규(생물48-52)·금진호(법학50-58)·이대순(법학53-57)·윤세영(행정56-61)·정운찬(경제66-70) 고문, 이부섭(화학공학56-60) 관악경제인회 회장, 성기학(무역66-70) 상임부회장, 김인규(정치69-73) 수석부회장, 류진(영문78-83) 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이강덕(정치82-88) 관악언론인회 차기 회장, 금난새 지휘자가 함께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를 선창하는 사회자의 말에, 객석의 동문들은 “나가자”라고 화답하며 힘을 보탤다. >>3면에서 계속

### 관악춘추

## 천일의 코로나, 이제 헤어지자



김창균

경제80-84  
조선일보 논설주간  
본지 논설위원

2020년 1월초, 그러니까 꼭 3년 전이었다. 미 NBC TV 저녁 뉴스에서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했다.

미국 지상과 방송 메인 뉴스에서 자기 나라도 아닌, 제 3국의 질병 소식을 전하는 이유야 뭘까 생소하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게 길고 지루한 코로나와의 전쟁 발발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었다.

신종 플루니 메르스니 하는 전염병을 이미 겪어 봤던 터였다. 발원지인 중국과 몇몇 나라가 겪는 일이겠거니 싶었다. 한국은 중국 옆에 사는 죄로 함께 매를 맞아야 하는구나 억울한 생각도 들었다. 전문가들은 겨울에 기승을 부

리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물러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4월 총선 전 또는, 총선 후 그 어간으로 짐작했다. 코로나가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번질 줄은 정말 몰랐다. 세계적인 대유행이라는 뜻의 팬데믹, 말 그대로였다. 이 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먼 훗날 지구촌 어디서 마주쳐도 “코로나 때 말이야...”라고 운을 떼면 말이 통할 것이다.

2020년말 인터넷에선 “올해는 나이 한 살 안 먹은 걸로 쳐달라”는 우스개 소리가 등장했다. 아무 것도 한 것 없이 한 해를 보냈으니 없었던 세월로 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0, 21학번 대학생들은 미팅은커녕, 과 사무실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황금 같은 신입생 시절을 흘러보냈다.

코로나 사태 만 3년, 날짜를 꼽으면 천일이 훌쩍 넘는다. 5000만 국민이 그동안 쓰고 버린 마스크 개수가 500억 개 가량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며칠 전 마스크를 안 쓰고 출근길에 나섰다

가 화들짝 놀랐다. 초등학교 때 준비물 빼먹고 등교했을 때 낭패감이라고 해야 할까.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집어 들고 입을 가린 채 계산대를 향할 때는 공중질서를 해친 죄책감에 시달렸다.

식사 모임 인원제한이 4명, 6명을 오가다 2명만 마주앉을 수 있는 극단적 상황도 겪었다. 식당 영업 시간 마감도 밤 10시에서 9시, 심지어 오후 6시까지 당겨지기도 했다. 거리두기 2단계, 3단계를 오가다가 2.5단계 절충안이 등장하기도 했다. 강도를 조절해 가며 민방위 훈련을 받는 기분이었다.

영화 ‘천일의 앤’에서 주인공은 “천일동안 사랑이 엇갈리면서 둘이 서로 사랑한 날은 딱 하루였다”고 회고한다. 코로나와 천일동안 밀고 당기기를 했지만 코로나를 사랑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광고 문구를 새해 소망으로 빌고 싶다. 코로나, 이제는 헤어지자, 두려움 없이.

## “나눔·창조 정신으로 새로운 변혁 이끌어 갑시다”



김종섭 회장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하는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44만 서울대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 둔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등 국제 정세도 순탄치 않습니다. 금년 우리 경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많은 동문들께서 총동창회에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동창회는 새해에도 ‘보람 있는 동창회, 유익한 동창회, 즐거운 동창회’를 모토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작년 5월 서울대 가족음악회, 10월 ‘홈키링데이 동문 나눔 한마당’을 비롯해 16차례에 걸쳐 조찬 포럼 및 수요특강을 열어 수준 높은 지식과 통찰을 동문들과 나눴습니다. 올해도 이를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서울대 경제인 동문들의 모임인 관악경제인회도 지난해 8월 발족하여 모교 발전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새해부터 펼쳐나갈 것입니다. 사회공헌위원회도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과 협력하여 국내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서울대 동문들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서울대와 우리 국민 사이에 더 따뜻하고 공고한 유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작년 가을 개설된 동문 전용 온라인쇼핑몰 ‘Mall SNUA’를 통해 가전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여러 유명 호

텔, 음식점, 병원 등과 MOU를 맺어 동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평창캠퍼스 일대에 힐링 명소로서 ‘동문 시니어타운’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동창회’ 프로그램으로 골프대회, 바둑대회, 국토문화여행, 등산대회 등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총동창회는 각 단과대 및 특별과정 동창회 그리고 해외·지방지부의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1300여 명의 장학생에게 3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단법인 관악회 기부금 규모와 기부자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부자 및 기부액 증가는 서울대 동문들의 후배 사랑, 모교 사랑의 뚜렷한 징표이자,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오는 5월 10일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릴 예정인 동문 가족음악회도 기부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는 ‘서울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문들은 각자 맡은 위치에서 나눔과 창조의 정신으로 새로운 변혁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동창회 역시 44만 동문들의 중지를 모아 모교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오피니언 리더 집단으로서 한층 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는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위기를 헤쳐 나가는 지혜와 전략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2023년 더욱더 건강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토끼처럼 슬기롭게 헤쳐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지성의 빈곤이 불러온 난세, 지성인의 역할 중요”



오세정 모교 총장

한 해를 보내며 늘 상투적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 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지난 2022년은 그야말로 이 말이 절실히 와닿는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은 듯이 반목, 대립하며 좀처럼 통합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전에 보지 못한 조짐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어 금년이 매우 힘든 한 해가 되리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다시 떠올리기도 가슴이 미어지는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설마 했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벌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가까운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했지만 국제사회가 이를 마냥 축하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위 선진국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들이 해방 후 70년 넘게 따라 배우고자 했던 나라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민주적, 비지성적인 현상들이 가득합니다. 극심한 빈부갈등, 정치적 진영대립, 가짜뉴스의 난무 등으로 인해 새해를 맞는 기분이 희망적이지 않은 않습니다. 옛 사람들이 말한 ‘난세(亂世)’란 아마도 이런 것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서울대 구성원 여러분! 과거의 난세는 일부 권력자들의 야심이나 지나친 행동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면, 지금의 난세는 ‘지성의 빈곤’, ‘지성의 타락’이 그 배경에 도사리고 있다면 지나친 얘기일까요? 교육받고 정보를 가진 거대한 대중이 공론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현실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확한 지식·정보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들으려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진영대립, 가짜뉴스의 난무 같은 문제들은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지식인들이 이런 흐름에 영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멸절했던 지식인들이 ‘오디언스(audience)’에 영합하여 곡학아세(曲學阿世)의 궤변을 늘어놓는 일이 흔한 일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들이 양 진영의 유력 ‘스피커(speaker)’가 되어 우리 사회를 타락시키고 분열시키는 일이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사회에 지성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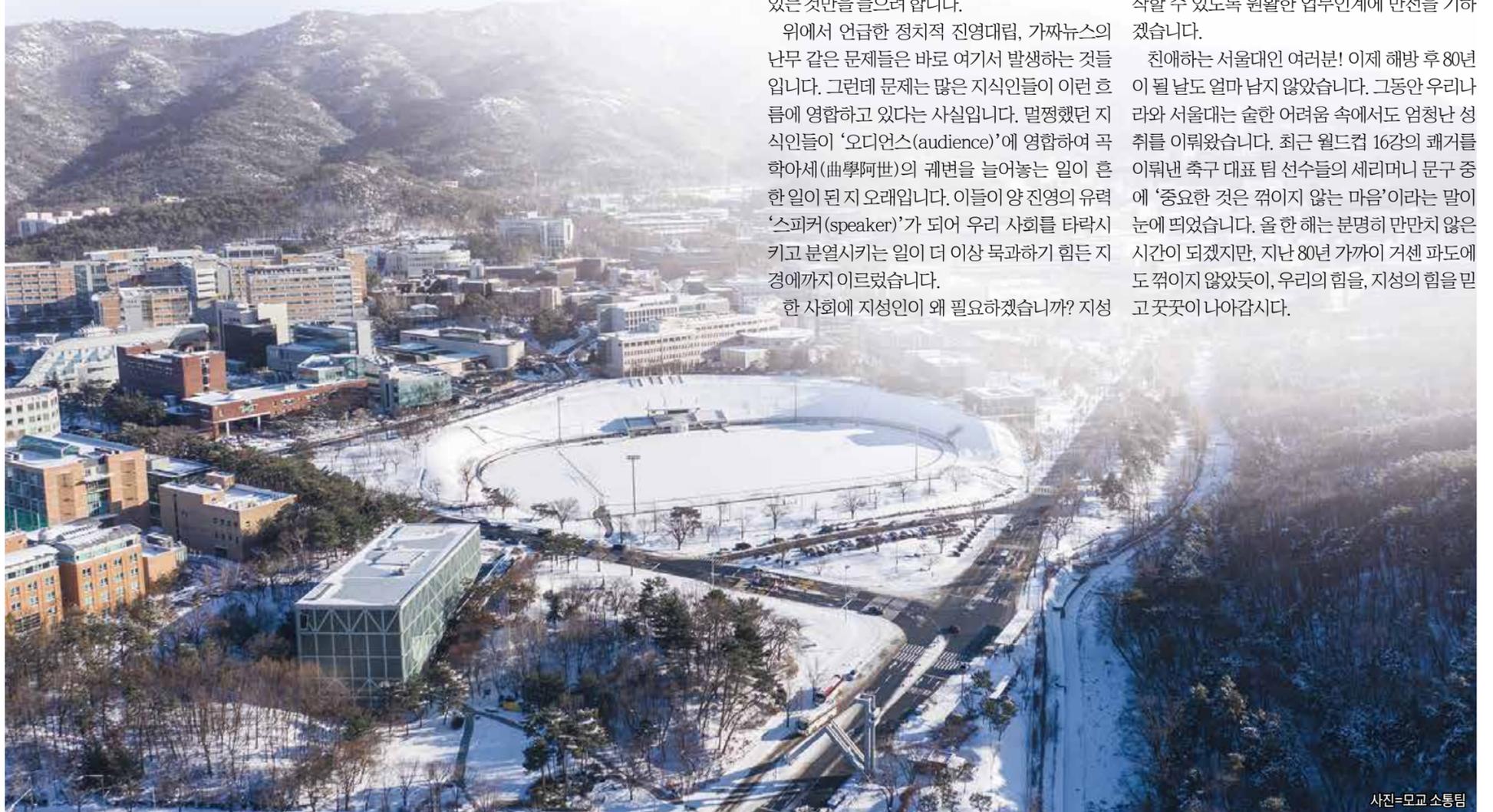
인을 양성하기까지는 사회적으로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지성인은 양쪽 진영에서 비난 받는 일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리 답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사실만을 취사선택하여 왜곡된 주장을 전파하려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 맞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성의 빈곤’, ‘지성의 타락’이 현 난세의 원인이라는 것은 거꾸로 지성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만 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이기도 합니다. 반지성주의가 난무하고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이 의심받는 지금이야말로, 서울대인들의 진가를 발휘해야 하는 때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국민은 지난 70여 년간 누가 뭐래도 서울대를 믿어 주고 자랑스럽게 여겨주고, 묵묵히 뒷바라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서울대를 바라보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믿음과 성원에 서울대가 얼마나 잘 부응했는가는 반성해야 할 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서울대와 우리 사회 ‘지성의 존재’의 의의를 증명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초단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너무 빠르고 그 성취의 정도는 너무 대단해 눈이 부시기도 하지만, 그 눈부심 속에 혹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도대체 이 변화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는 불안감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학은, 특히 서울대는 근시안으로 숨가쁜 변화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우리 미래의 조감도와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내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가 긴 호흡을 갖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우리 서울대는 오랫동안 ‘중장기발전계획’을 준비해 왔고, 드디어 작년에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곧 임기를 마치지만, 금년 2월 새로 들어설 집행부는 이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또 과감하게 서울대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저는 새 집행부가 최적의 환경에서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인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서울대인 여러분! 이제 해방 후 80년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서울대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엄청난 성취를 이뤄왔습니다. 최근 월드컵 16강의 쾌거를 이뤄낸 축구 대표팀 선수들의 세리머니 문구 중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올 한 해는 분명히 만만치 않은 시간이 되겠지만, 지난 80년 가까이 거센 파도에도 꺾이지 않았듯이, 우리의 힘을, 지성의 힘을 믿고 곳곳이 나아갑시다.



사진=모교 소통팀

# “고맙습니다”, “잘해봅시다” 독려하며 새해 인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동문님들 모두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란다는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하셨다”고 말해 동문들의 박수를 받았다.



(왼쪽 사진) 단대 및 특별과정 동창회 발전에 힘쓴 동창회장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왼쪽부터 이부섭 전 공대동창회장, 문용린 전 사대동창회장 대신 받은 이규석 사대동창회장, 임동주 전 수의대동창회장, 오세정 모교 총장, 김형진 전 AIP동창회장, 김종섭 분회 회장, 이정익 전 ACAD동창회장, 오는 2월 이임하는 류희근 HPM동창회장, 정운선 전 안동지부회장. (사진 오른쪽)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금년새 단장의 지휘 아래 클래식 음악 연주를 선사하고 있다.



## 국무총리·부총리 끝까지 함께 전임 동창회장들에게 공로패

>>1면에서 계속

이날 행사에 앞서 30분간 금년새 지휘자와 뉴월드 챔버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신년음악회가 열렸다. 금 동문은 ‘30분간 의자를 편하게 돌리고 음악을 들어 달라’며 공연을 시작했다. 레스피기의 고대 무곡과 아리아 모음곡 제3번 중 ‘이탈리아’, ‘파사칼리아’ 등을 연주했다. 모교 재학생 바이올리니스트 권예은(기약21입) 씨가 사라사테의 ‘치고이네르바이젠’을, ‘첼로 신동’으로 이름을 알린 16세 첼리스트 최아현씨가 ‘하이드의 첼로 협주곡 제1번 C장조’ 중 3악장을 협연해 큰 박수를 받았다. 붉은 옷과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온 오케스트라의 열정적인 연주와, 곡과 곡 사이 금 동문의 재치 있는 멘트는 단 30분의 연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동문들도 휴대폰에 공연 영상을 담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어 김종섭 회장이 행사를 여는 말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동문께서 총동창회에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새해에도 ‘보람 있는 동창회, 유익한 동창회, 즐거운 동창회’를 모토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며 신년 동창회 사업과 행사를 소개했다. 김 회장은 “우리 동문들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나눔과 창조의 정신으로 새로운 변혁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월 31일 퇴임하는 오세정 총장은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서울대의 내일을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하는, 한 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던 시간들이었다”면서 “이러한 고민 속에서도 항상 모교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동문 여러분이 계셔서 안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모교의 여정에 힘이 되어주실 것



모교 음대 혼성 중창단이 축하공연을 했다.

을 부탁드립니다”고 고별인사를 전했다. 김종섭 회장도 “4년간 모교 발전에 헌신해 오셨다”며 오 총장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동창회 활성화에 이바지한 단과대학·특별과정·지방지부 전임 동창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공과대학 동창회 이부섭(화학공학56-60) 회장, 사범대학동창회 문용린(교육67-71) 회장, 수의과대학 동창회 임동주(수의학74-78) 회장, 최고산업전과과정 동창회 김형진(AIP 21기) 회장, 국가정책과정 동창회 이정익(ACAD 34기) 회장, 보건 의료정책최고위과정 동창회 류희근(HPM 4기) 회장, 안동지부 정운선(농

가정76-80) 회장이 공로패를 받았다. 오찬 시작과 함께 김종섭 회장은 직접 마이크를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덕담을 부탁했다. 오세정 총장과 유홍림 모교 총장 최종후보자를 응원해 달라며 ‘수고하셨습니다’와 ‘앞으로 수고해 주십시오’를 외치기도 했다. 올해로 95세를 맞이한 조완규 전 모교 총장은 “지금도 서울대 후문 국제백신연구소에 사무실을 두고 매일 출근한다. 서울대와 70년 넘게 인연을 맺으며 입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늘 생각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서울대가 되길 바란다”며 건배를 제의했다. 행사는 모교 음대 혼성 중창단 샤프레의 축하공연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 윤세영(행정56-61) 분회 고문이 100만원을 후원했으며, 이철우(ACAD 60기) 경북도지사가 축전을 보내왔다. 박수진 기자

## “10년 내 세계 5위 수준 국가 달성할 수 있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 축사 (요약)  
오늘 서울대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서울 법대 37회 동문이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동문들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라는 인사 말씀 꼭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경제전문가도 많으시고, 항상 시의적절하게 비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해 주시는 정운찬 전 총리님도 계셔서 경제에 대해 얘기하러니 떨립니다. 그러나 현직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제 정책을 하고 있는 저희 모두 왜 지금의 어려움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경제 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10년, 20년 앞을 봤을 때, 계속 내려가는 우리의 잠재성장력, 인구 감소 전망, 기후변화라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와 사회 분야를 압도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무슨 개혁을 해야 하고, 어느 분야를 더 효율성 있게 만들어야 하는가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 모두 더불어 잘 사는 경제·사회 체계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더 많은 역점과 고민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경제 전체, 국가 전체의 총요소생산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노동의 투입, 자본의 투입, 기술 개발 예산의 투입에 그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가 좀 더 경쟁적이 되어야 하고, 더 약자를 보호해 주는 체

제가 되어야 하고, 또 정치적으로 협치를 이룰 여건도 만들어야 하는, 이것들을 다 포괄한 전체적인 제도를 바꾸는 정말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제도 개혁을 위해선 어느 한 사람, 한 분야의 열정과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전체, 기업인, 학계, 시민단체, 정부 모두 힘을 합쳐서 어려운 때는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같이 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러나 지난 70년 가까운 시간 정말 어려운 정부 개혁을 실제로 해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가나에 갔더니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는데 딱 하나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겁니다. 80년대 중반 대한민국 정부가 두 팔 두 다리를 잘라내는 기분으로 기업에 대한 수많은 규제들

을 없애고 기술과 경쟁 쪽으로 일종의 대전환을 했던 의지와 목표가 가나는 없었습니다. 가나 대통령에게 제가, 우리가 한 것 중 하나를 내일까지 번역해 주겠다고 했더니 꼭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김진호 장관님을 모시고 만든 ‘공업발전법’을 하루 만에 번역해 그 다음날 갖다 줬더니 모든 장관들에게 다 카피해서 주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국민과 정부, 기업은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반드시 성공하고, 잘 되고, 최근 어느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계 5위 수준의 국가를 적어도 10년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움 많으시겠지만 올해도 더욱더 힘 내시고, 건강하시고 맥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총동창회 행사

<b>2월</b>	수요특강 2월 22일 (수) 오전 7시 30분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등산대회 2월 23일 (목) 오전 10시 과천서울대공원 둘레길	
<b>3월</b>	조찬포럼 3월 9일 (목) 오전 7시 30분 플라자호텔 LL층 그랜드볼룸
수요특강 3월 22일 (수) 오전 7시 30분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 시상식 3월 24일 (금) 오후 6시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b>4월</b>	국도문화기행 4월 20일 (목) 오전 9시 강화 교동도
수요특강 4월 26일 (수) 오전 7시 30분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등산대회 4월 중 강화 고려산	
<b>5월</b>	가족음악회 5월 10일 (수) 저녁 잠실 롯데 콘서트홀
수요특강 5월 24일 (수) 오전 7시 30분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b>6월</b>	조찬포럼 6월 8일 (목) 오전 7시 30분 플라자호텔 LL층 그랜드볼룸
수요특강 6월 28일 (수) 오전 7시 30분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등산대회 6월 하순(산행지 미정)	
<b>7월</b>	바독대회 7월 2일 (일) 오전 9시 30분 관악캠퍼스 농생대 제3식당 (75-1동)
<b>8월</b>	수요특강 8월 23일 (수) 오전 7시 30분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나눔골프대회 8월 30일 (수) 레이크사이드 CC (경기도 용인)	
등산대회 8월 하순(산행지 미정)	
<b>9월</b>	조찬포럼 9월 14일 (목) 오전 7시 30분 플라자호텔 LL층 그랜드볼룸
수요특강 9월 27일 (수) 오전 7시 30분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b>10월</b>	츠크링데이 10월 15일 (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일대
수요특강 10월 25일 (수) 오전 7시 30분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등산대회 10월 하순(산행지 미정)	
<b>11월</b>	조찬포럼 11월 9일 (목) 오전 7시 30분 플라자호텔 LL층 그랜드볼룸
수요특강 11월 22일 (수) 오전 7시 30분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b>12월</b>	수요특강 12월 27일 (수) 오전 10시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 “정치인들의 선심정책은 사탕발림일 뿐...공짜는 반드시 보복한다”

박병원 (법학71-75)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대담·글·방문신 (경영82-89)  
SBS문화재단 사무처장

박병원 동문은 삶의 스펙트럼이 참 다양하다. 경험의 폭도 넓다. 법대를 나와서 법조인이 아닌 경제관료를 했다. 보수-진보 정권에서 두루 기용됐고 민-관을 넘나들며 역할을 해 왔다. 석사 학위만 법학, 경제학, 산업공학 3개이다. 외국어도 영어 이외에 일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를 공부했다. 일벌레 형 같지만 시, 클래식, 식물, 사진 등 취미도 다양하다. 취미 차원을 넘어서 전시회를 열 정도의 전문가급이다. 깊이와 다양함 모두 가히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수준이다.

화려한 경력과 달리 성품은 털털하다. 옷차림도 정장보다는 실용적 복장에 운동화 착용이 많다. 차량도 6년 된 미니를 운전하고 다닌다. 인터뷰를 하러 간 필자를 부르는 호칭 또한 격식 없이 ‘문신이 형’이었다. (11년 후배에게 형이라니? 생각하겠지만 박병원 동문 특유의 호칭법이다) 허물없이 대화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스타일 때문에 ‘쓴소리 소신꾼’, ‘구원 투수’, ‘규제개혁 전도사’, ‘해결사’ 등 언론이 이름 지어 준 별칭도 다양하다.

인류의 탄생 이래 경제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지만 올 한 해는 특히 경제의 향방이 최대 관심사다.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 화두가 돼 있다. 신년 인터뷰 대상자를 박병원 동문으로 정한 것은 올해 경제 문제가 워낙 중요하고 커 보이기 때문이었다. 금리, 부동산, 금융 등 개별 이슈는 물론 경제에 얽힌 이해관계 분별법, 경제에 숨겨진 거짓말 찾아내는 법 등 박병원 동문 특유의 경제 철학을 함께 들을 수 있었다.

-최근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서비스산업 발전 TF 민간위원장 등을 맡게 됐다. 왜 ‘박병원’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다(웃음). 애써 좋게 해석한다면 경제 문제를 규제로는 풀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 아닐까? 대한민국 제조업은 세계 최고인데 대한민국 농업과 서비스업은 왜 시대에 뒤쳐져 있을까 비교해 보라.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보호와 지원으로 출발했지만, 수입 개방과 규제개혁을 하면서 진화해 왔다. 반면에 농업, 서비스 분야는 아직도 규제의 질곡에 묶여 있다. 그 결과가 세계 일류의 제조업, 시대에 뒤진 농업-서비스업으로 나타난 것이다. 농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국민이 특히 더 무능하거나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수준 차이가 남쪽 국민은 우수하고 북쪽 국민은 무능하기 때문일까? 개인의 문제가 아닌 체제의 차이, 선택의 결과물이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

를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 이 본질을 제대로, 정확하게 건드려 주는 게 진짜 개혁이다.”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는다면?

“‘경제에서 공짜는 없다’는 것을 국민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성향이 있다. ‘이것도 공짜로 해주고 저것도 공짜로 해주겠다’는 식이다. 다 사탕발림이고 거짓말이다. 지금의 물가, 금리, 환율 상승은 나랏돈 펄펄 써댔던 데 대한 대가이다. 그 부담은 다음 세대로 아닌 바로 지금 현 세대가 치르게 되어 있다. 이른바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뤄졌던 공짜 선심 정책들이 모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 부메랑은 저소득층을 더 세게 공격하고 없는 자를 더 힘들게 하는 특징이 있다. 인플레이, 고금리로 누가 더 손해보고 있나? 못사는 사람에게 더 혹독하지 않나? 공짜는 없는 법이다. 이상황을 보고도 ‘공짜가 가능하다’고 떠들어 댔던 그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는 전 세계 정치인들의 공짜 공세가 만들어낸 대가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해져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다. ‘공짜는 반드시 보복한다. 그 보복은 없는 사람을 더 집중 공격한다’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제 원칙이다. 경제가 정치로부터 해방되면 국민들이 정치인의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이런 문제를 정책으로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우리 무의식 세계에 스멀스멀 자리 잡은 고정관념이 있다. 모든 근로자가 똑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모든 농민이 바라는 게 한가지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착각이다. 노동계층을 보더라도 민노총 가입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 실업자는 입장과 이해관계가 전혀 다르다. 취업을 갈망하는 청년과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바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는가? 농민의 경우도 농사를 계속 짓고자 하는 농민과 탈농을 간절히 원하는 농민을 어떻게 한 잣대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모든 근로자, 모든 농민, 모든 국민이 똑같은 걸 원하지 않는 데 이를 무시한 채 단 하나의 획일적 잣대,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착각이고 독선이고 경직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다양한 선택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핵심이다.”

-여러 규제 중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최우선 순위는?

“경제의 3대 요소는 돈(자본), 땅(토지), 사람(노동)이다. 이 가운데 땅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아까 농민도 각양각색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도시 주변부에서는 농민들의 소원이 그 땅에서 계속 농사짓는 것일까? 그 농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물론 농민이 농지를 못 팔게 하는 규제는 없다. 그러나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못 사게 하는 규제는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결국 농지를 팔고 싶은 농민이 농지를 팔 수 없게 되는 건 마찬가지로 아닌가? 쌀은 계속 남아돌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판인데 탈농을 원하는



‘국민이 같은 걸 바란다’는 착각에서 해방돼야  
진짜 개혁은 땅과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  
‘英雄本學萬人敵’이 나를 경제관료로 이끌어  
불어·일어·이태리어·러시아어 등 외국어 공부

사람에게까지 강제로 농사를 짓게 해 국민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땅이 필요할 때 농지와 임야를 더 헐어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땅들을 꼭 묶어 놓고 토지 공급을 원천 봉쇄하니 집값은 올라가고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기 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쌀, 밀, 옥수수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2, 4, 6배 늘어나서 맬더스의 인구론 자체가 옛날 얘기가 되었는데 아직도 식량안보와 국내 농지 보전에 매달려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식량안보는 달러를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의 능력이지 국내 농지를 잘 보전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주장이다.”

-금리와 부동산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국내 경제, 세계 경제의 향방은?

“세계 경제를 진단할 능력이 없다(웃음). 국내 경제 이슈들은 나름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전망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달라지는 않는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토지 이용규제 개혁으로 사람과 땅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본인의 경제관 또는 경제철학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자유와 자치다. 개인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그게 자유의 힘이고 시장의 힘이다. 자유에 기반한 경제 논리를 힘과 규제로 대체하려는 정치인들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수 없이 봐왔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적이었던 것은 그 점 때문이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건 그렇다 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골라서 했기 때문’이었다. 집값이 올라가면 집주인 때문이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건

-경제관료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했을지?

“문화평론가나 여행평론가를 했을지 모르겠다. 젊었을 때도 그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그런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히려 생각을 못했다.”

-석사 학위만 법학, 산업공학, 경제학 3개인데 공부하는 게 재미있는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웃음).”

-시, 식물, 클래식 등 관심 분야가 다양한데 업무 외 영역에서 내 삶을 가장 풍성하게 해 준 것 하나를 꼽는다면?

“여행이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행을 하면 미술관, 식물원을 반드시 들른다. 그리고 반드시 걷는다. 걸어야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차를 타고서는 꽃을 볼 수가 없다. 2011년 캘리포니아, 14년 한국, 17년 알프스의 야생화 사진을 가지고 전시회를 열어 북한에 어린이 전염병 예방 주사약을 보내는 데 돈을 보탬 수 있었던 것도 다 여행 덕분이었다. 여행은 책 이상의 독서이다. 내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준 원동력이었다.”

박병원 이사장은

195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경기고와 모교 졸업 후 1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정책과 예산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96년 재정경제원 예산총괄과장, 2001년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2005년 재정경제부 1차관, 2007년 우리금융지주 회장, 2008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2011년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2013년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2015년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역임했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한국화랑미술제 조직위원장 등 문화예술계에도 활동했다.

2019년부터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총리실 규제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재정경제부 ‘서비스산업발전 TF’ 민간팀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물주 때문이라는 식의 알팍한 정치논리, 집값 잡겠다고 했다가 집값에 불붙었던 수많은 규제들, 약자 편이라며 최저임금 급격히 올렸다가 가장 약자를 실업자로 전락시켰던 일방주의 등등. 그 정책들의 결말이 어땠는가?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끌고 가는 비합리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였다. 규제의 참담한 결과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자유와 자치’의 경제철학을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관료 시절, 그 경제철학을 실천한 사례는? 가장 보람있었던 경험은?

“노무현 정부 때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차관을 차례로 거치면서 했던 일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 있다. 서비스산업의 혁신,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일들이었는데 업종으로 보면 골프장 규제를 푼 것이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다. 한미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은 규제혁파를 위한 좋은 수단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의료, 교육을 개방하지 못해 가장 어렵다’는 말을 남겼다. 서비스업 개방을 못해 어렵다는 소회로 들렸는데 핵심을 짚은 지적이었고 지금도 유효하다. 80년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경제논리를 가장 잘 들어줬던 사람은 전두환, 노무현인 것 같다.”

-법대를 나와 법조인 대신 경제관료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과거사를 캐는 일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 세상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영웅이라는 말이 걸리지만 항우가 말한 영웅본학만인적(英雄本學萬人敵: ‘무술은 한 사람을 상대하지만, 병법은 만인을 상대한다’는 뜻)에 공감했다.”

# 서울대 교수의 사회 기여 욕구 담은 '용광로'

##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1주년

### 작년 한 해만 23차례 학술행사 융복합 정책 '싱크탱크' 자임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누가 들어 冠岳을 보게 하라’

정희성(국문64-68) 시인이 1971년 대학신문에 발표할 시 ‘여기 타오르는 빛의 聖殿이’의 일부다. 워낙 유명해 서울대 동문에겐 물론 우리 국민에게도 익숙한 구절이다. 반세기 동안 시대는 변했고 일각에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모교에 거는 기대가 특별하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더욱 치열해진 기술 경쟁과 분열하는 국제 협력,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와 성별·세대별 갈등, 인간 문명의 한계를 꼬집은 코로나19 팬데믹까지. 허공을 딛고 걷는 것 같은 막막한 현실 속에서 2022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하 전략원)이 출범했다. 오는 2월 24일 개원 1주년을 맞는 전략원을 지난해 12월 28일 둘러보고 김병연(경제81-85) 원장과 만나 인터뷰했다.

### 2016년 시작된 국가정책포럼이 시초

모교가 국가정책의 조력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여러 활동을 한 건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1회 국가정책포럼이 시작이었다. 학계의 논의가 과연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불식시키려는 듯 당시 박원순(SGS 9기)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원희룡(공법82-89) 제주지사 등 유력 정치인이 대거 참석했다. 이후에도 국가 핵심 의제와 관련해 꾸준히 공론의 장을 열었지만, 단발성 이벤트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힘들었다.

2019년 국가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로 거듭났을 때에도 논의할 주제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발전적 형태를 띠긴 했으나 사회적 과제를 이슈화해 밀고 당길 수 있는 제도화된 프로세스의 필요성은 여전했다.

이에 2020년, 오세정(물리71-75) 총장은 올해 2월 차기 총장에 취임하는 유홍림(정치80-84) 사회대학장에게 정책 싱크탱크 설립 방안의 연구 책임을 맡겼다. 김병연 현 원장은 연구팀의 자문 위원장을 맡았고 이어 이를 제도화하는 절차를 추진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국가미래전략원. 반기문(외교63-70) 제8대 유엔사무총장이 서울대 초빙석좌교수 및 명예원장을 맡아 함께 이끌고 있다. 위원회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20차례의 포럼 개최와 더불어 2021년 10월 ‘코리아리포트 2022: 다음 정부의 길’을 발간한 반면 전략원은 출범 후 1년 동안 포럼·강연·토론회 등 총 23차례의 학술행사를 개최해 더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초청 강연 및 대담, 에드윈 J. 풀너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소 회장 초청 토론회 등 전략원 단독 학술행사뿐 아니라 제도와 생활 속 민주주의에 대해 연구·교육하는 ‘민주주의 클러스터’, 방역을 비롯해 감염병이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팬데믹 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초청 대담



‘반도체 삼국지’ 저자와의 대화

러스터’, 기술 주권의 지속적 확산과 과학 인재 양성을 연구하는 ‘과학과 기술의 미래 클러스터’, 경제안보지수를 개발하고 현황을 분석하는 ‘경제안보 클러스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감소 문제에 대비하는 ‘인구 클러스터’, 미중 갈등을 축으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을 연구하는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등 6개 하위 클러스터의 활약이 더해진 것이 비결이다.

이들 클러스터는 위원회 때 발간한 코리아리포트 2022의 주요 내용과 유홍림 학장이 전략원의 설계도를 그릴 때 제안한 연구 주제 중 서로 겹치는 분야를 대상으로 공청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클러스터의 장을 뽑는 과정도 흥미진진하다. 해당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이지만 클러스터엔 참여의사가 없는 교수에게 의뢰, 클러스터장 후보를 3순위까지 추천받아 1순위부터 차례로 접촉했다. 일각에선 교수 본연의 책무인 연구와 교육만으로 바쁜 서울대 교수들이 과연 참여할까, 하는 염려도 있었다. 그러나 6개 클러스터장 대부분 1순위에서 선임됐으며, 클러스터별로 평균 7명 이상씩 총 40여 명의 모교 교수들이 전략원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유홍림 차기 총장, 클러스터장 역할

김병연 원장은 “서울대 교수들이 칼럼을 쓰거나 인터뷰를 하는 등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자신의 지식과 연구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 같은 게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모교 교수들 또한 국민과 소통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통로 역할을 전략원에 기대하는 셈. 김 원장은 또 “서울대역사상 이렇게 활발히 외부와 소통하는 건 드문 일 같다”고 덧붙였다. 작년 2월 개원식 직후부터 국내 주요 일간지에서 협력을 제안해 왔다고.

“전략원 운영의 대원칙은 서울대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동시에 학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략원 차원에서 주최했던 학술행사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많이 보도했고, 민주주의 클러스터는 SBS D포럼과 함께 ‘다시 쓰는 민주주의’란 주제로 생방송을 했죠. 감염병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중앙일보는 팬데믹클러스터와 협력해 5회에 걸쳐 전면 기획 기사를 실었고요. 인구문제 클러스터는 동아일보와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미래 클러스터는 한국고등교육재단과 협력해 응용공학의 메카인 독일 프라운

호퍼와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는 최근 일본 전문가 및 기관들과 현지에서 밀도 있는 회의를 했습니다. 서울대란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동시에 외부 기관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고 있죠.”

### 언론·연구재단과 중형무진 ‘콜라보’

연구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연구용역은 일절 받지 않는 국가미래전략원. 그러나 경제안보 클러스터는 국가의 요구와 학내의 판단이 일치해 출범한 케이스다. 현재는 국제질서가 요동치면서 경제가 무기화 되는 시점이자, 경제와 안보가 융합하는 시점.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안보가 강조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데이터 분석으로 위협을 최소화하는 정량분석팀

과 전직 외교부 인사들이 획득한 지식을 자료화하는 정성분석팀으로 구성돼 향후 경제안보 상황을 평가하는 지수를 개발, 공개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에 기여할 방침이다.

전략원은 항구적 사회과제를 긴 호흡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조직의 유연성을 특징으로 한다. 전략원이 상부로서 하위 클러스터를 지원하지만, 그렇다고 원장이 클러스터장의 상관은 아니다. 각 클러스터는 3년 이상 독립적·자율적으로 활동하며, 즉시적 일시적 과제에 대해선 태스크포스(이하 TF)를 구성해 운용한다. 미국·중국·러시아·북한 등 주변국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활동 중인 ‘4대 지정학 TF’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인류

### 국가미래전략원 6개 클러스터

\*클러스터는 다학제적·융복합적·창의적 연구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정책연구집단을 뜻함.

클러스터 명칭	클러스터장
경제안보	김병연 경제학부 교수·원장
글로벌 한국	손인주 정치외교학부 교수·부원장
민주주의	유홍림 정치외교학부 교수
팬데믹	임재준 의학과 교수
과학과 기술의 미래	이정동 응용공학과 교수
인구	이철희 경제학부 교수

\*명예원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국가미래전략원은 다양한 협업을 통해 강연·대담·포럼 등 학술행사를 활발히 개최한다.

가 맞닥뜨리는 과제는 모두 융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문은 여전히 분절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각 클러스터는 고유의 주제로 나누었을 뿐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를 두루 포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만 해도 경제·교육·노인·인권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잖아요. 방역 전문가들만 모여 결정한 정책은 적절한 대응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많은 국가에서 방역을 위해 전국적으로 휴교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외려 학력 격차는 더 커졌고요. 전략원이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매뉴얼을 개발해 제2, 제3의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나경태 자

### 인터뷰

## “연구 독립성, 재정 독립성에 비례...동문들 성원 기다립니다”



김병연  
경제81-85  
국가미래전략원장  
모교 경제학부 교수

김병연 원장은 국가미래전략원(이하 전략원)의 전신인 국가정책포럼 때부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주요 일간지에 칼럼을 게재하고 통일평화 연구원장을 맡는 등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춰 전략원이 학외 기관과 왕성한 협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최적직자로 꼽힌다.

-전략원이 곧 출범 1주년을 맞는다.

“2021년 11월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원장으로 부임했고, 2022년 1월 처음으로 원장 직함으로 일간지에 칼럼을 썼다. 다음 날 바로 청와대 고위인사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정부 부처가 서로 협력해서 대처해야 할 사회 문제들이 마구 들이닥치는데 아직도 교육부 따로, 외교부 따로... 분절적으로 정책 방안을 갖고 올라온다고 하더라. 정부서도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던 차에 서울대가 융복합적 정책 연구를 하겠다니 고맙다고 했다.”

-그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각 클러스터의 주제별로 기본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여론을 환기한 게 가장 큰 성

과가 아니었나 싶다. 2000명이 넘는 모교 교수들의 지식을 총동으로 엮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정책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가정책위원회의 활동에 비해 ‘서울대’란 경계가 흐릿해진 인상을 받는다.

“어느 정도는 의도한 바다. 서울대 자원뿐 아니라 학외 자원 또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데 서울대라는 울타리를 고집하는 게 과연 옳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결과다. 마치 섬처럼 독립된 덕분에 사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학문적 탁월성을 일궈왔지만, 또 한편으론 그 탁월한 학문적 업적이 국가 발전에 얼마나 쓰였는가에 대해선 자신하기 어렵다. 서울대가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포괄하는 동시에 지적 수월성을 달성하기도 했지만, 모든 것, 예를 들면 사회와의 소통 같은 것까지 잘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특히 언론과의 협업이 많았다.”

-민주주의 클러스터장인 유홍림 교수가 곧 모교 총장에 취임한다.

“전략원은 본부 산하에 있지만, 독립적 상설기구다. 총장 후보 중 누가 됐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본다. 총장 후보 모두 전략원의 필요성에 다들 공감하실 터인데, 유홍림 차기 총장은 전략원의 설계도를 그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선출 과정에서

누차 우리 사회에서 서울대의 역할을 강조하셨으니 전략원을 열심히 지원해 주실 것 같다.”

-전략원이 국가 발전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국민 개개인의 역량이 향상된 것에 비해 국가의 정책이나 시스템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은 손쉽게 정치인 욕을 하지만 그런 정치인을 뽑는 건 대중이다.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이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까지 전략원이 대중의 관심을 환기했다면 이제부터 상식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좋은 정책, 좋은 정치인을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게 돕는다면, 아래서 위로 차근차근 올라가 좋은 정책으로 실현될 것이다. 물론 정책결정자와 국회의와의 소통에도 집중할 것이다.”

-끝으로 동문들에게 한 말씀.

“전략원은 관악캠퍼스 내 우석경 제관 4층에 있다. 이곳의 건립 비용 대부분을 성기학(무역66-70) 영원무역 회장님, 그리고 동문 여러분의 기부금으로 충당했다.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다. 연구의 독립성은 재정의 독립성과 비례한다. 좋은 연구와 정책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신임 단대동창회장 인터뷰

# “SNS 활용 재미 넘치는 소통의 장 만들 것”

**공대동창회장**

정진섭 (산업공학75-79) 오픈베이스 회장

**팬데믹 동안 위축, 정상화박차  
학과동창회와 더 긴밀히 협력**

작년 12월 15일 정진섭 오픈베이스 회장이 공대동창회 회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이미 산업공학과 동창회장을 맡아 봉사 중이라 공대동창회장을 겸임하는 건 적지 않은 부담이었지만, 같은 과 출신인 홍유석(산업공학 84-88) 공대학장의 간곡한 요청으로 어려운 결심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싸늘히 식은 동창회의 ‘엔진’을 다시 뜨겁게 데우는 중책을 부여 받았다. 12월 29일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픈베이스에서 정 신임 회장을 만났다.

“우선 동창회 ‘정상화’가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2월 최우수졸업생 시상식, 4월 준계등반대회 및 동문자녀 초청 행사, 9월 추계등반대회, 12월 정기총회 및 송년회 등 기존 활동을 정상적으로 개최해 모임과 소통의 장을 다시 열겠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문자, SNS 같은 온라인 교류 공간에 익숙해서 공통의 관심 이슈를 포착해 확산시킨다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정 회장은 이를 위한 밑바탕으로 기존 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한 친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새롭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개설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고민한다는 정진섭 회장,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로 ‘학과 및 학부 대항전’을 제시했다. 공대동창회 회원은 7만1100여 명으로 규모가 커 공대 전체 모임보다 학과 및 학부 단위 모임이 더 왕성한 게 현실. 이를 감안해 우리 과 소모임 자랑이나 자랑스러운 동문 경연 등 ‘귀여운 경쟁심’을 자극해 단위 동창회 활동을 공대 동창회 전체 차원으로 연계시킨다는 구상이다.

“학과 동창회의 지원이 없는 공대동창회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위 동창회와 호흡을 맞추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동시에 학과 단위에선 추진하기 어려운 활동이나 사업을 공대동창회가 찾아내 발전시켜야 해요. 멀리 떨어져 외로운 동문에게 소속감을 심어준다든가 지방이나 외국에서 이뤄지는 동문 모임을 지원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죠. 빠른 시일 안에 각 학과 동창회장들과 만나 더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각 학과 동창회와는 물론 재학생과 연계된 사업 또한 강화한다. 후배와 재학생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공대 출신 유명 인사를 동창회 모임에 적극 초청하는 한편 진로 탐색과 관련한 지원 사업도 구상 중이다. 정 회장은 “여러 사업을 해본 경험상 하고 싶어서 한 일보다 남이 잘할 것 같다고 추천해준 사업의 성과가 더 좋았다”며 후배 재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해 얼마나 준비됐는지 선배 동문들이 객관적으로 진단해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학과 학부 단위 동창회에서 활발한 장학사업을 공대동창회 차원에서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장학생과 기부 동문 간에 인연을 더 뜻깊게 하는 자리, 수혜 학생들이 동창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하고요. 모교 동문들께 모여서 이익집단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동창회 모임이 한동안 활발하지 않았던 이유였죠. 이전 인식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동창회에 우리 동문들의 에너지가 응축되면, 모교 공대 발전에도 기여하고 불우한 동문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창회에 꾸준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 회장은 모교 졸업 후 카이스트에서 석사, 스탠퍼드대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과대표를 맡았던 것이 계기가 돼 ‘정 회장’이라 불렀는데 그게 인생 호칭이 됐다고.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분석·처리하는 회사로 시작한 오픈베이스는 현재 빅데이터·인공지능 분야의 ‘데이터솔루션’과 네트워크·보안·클라우드 분야의 ‘오픈베이스’로 나뉘어 코스닥에 상장돼 있다. 취미는 골프, 당구, 외국어 공부. 좋아하는 말은 삼인행 필유야사(三人行必有我師). **나경태 기자**

**의대동창회**

## 재난 현장 뛰어든 김용민 동문, 장기려의도상



왼쪽부터 이수흠 회장, 권오상·조용범 함준의학상 수상자 부부, 최홍윤 함준젊은연구자상 수상자 부부, 이정훈 함준동아의학상 수상자 부부, 정재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권오상·조용범 함준의학상**

의과대학동창회(회장 이수흠)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함준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수흠(73-79) 회장, 백남종(84-90) 분당서울대병원장 등 동문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김용민(78-84·사진) 국립경찰병원 정형외과 기술서기관이 제19회 장기려의도상을 수상했다.

김용민 동문은 충북대 교수 정년을 6년 남긴 2018년 명예퇴직 후 ‘국경없는의사회’ 구호활동가로 변신해 에티오피아 오지 감벨라, 총성이 끊이지 않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등 험난하다 못해 위험한 곳으로 자진해 나갔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가장 필요한 곳이 총상이나 폭탄 피해 환자가 많은 분쟁 지역이라는 이유에서다. 2010년 아이티 대지진 긴급구호단, 2014~2017년 동아제약 국토대장정 의무지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의무위원 등으로도 봉사했다.

권오상(90-94) 모교병원 피부과 교수·조용범(90-96) 삼성서울병원 외



과 교수가 함준의학상을, 최홍윤(06-10) 모교병원 핵의학과 임상 조교수가 함준젊은연구자상을, 이정훈(98-02) 모교병원 내과 임상 교수가 함준동아의학상을 받았다.

권오상 동문은 피부진피 섬유아세포의 모낭재생경로를 조절하는 Twist2 전사인자의 조절을 통해 심한 피부 조직 손상이나 영구탈모 재생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으며, 조용범 동문은 혈통 의존적 유전자 발현 프로그램이 대장암 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최홍윤 동문은 공간상 존재하는 모든 분자수준 분포를 다차원 이미지처럼 한꺼번에 모두 획득하는 공간생물학 관련 연구를 했고, 이정훈 동문은 만성 B형 감염 및 항바이러스제 치료와 간의 악성종양 발생 사이의 연관 관계를 연구했다.

시상식 후 가곡 공연이 펼쳐져 여흥을 돋웠으며 만찬과 경품 추첨이 이어졌다.

**SPARC동창회**

## 송년 갈라 디너쇼에 200여 명 참석



왼쪽 다섯째부터 김희철 회장, 오종남 명예주임교수, 김수정 동문을 비롯한 SPARC동창회원이 작년 12월 1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송년 갈라 디너쇼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었다.

과학기술 혁신 최고 전략 과정 (SPARC)동창회(회장 김희철)가 작년 12월 14일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송년 갈라 디너쇼’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희철(29기) 회장, 박준희(20기) 명예회장을 비롯해 오종남(행정70-75) 명예주임교수, 유재준(물리80-84) 자연대학장, 박상욱(화학91-95) 주임교수 등 동문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부 경과보고에서 올 한 해 동안의 동창회 활동과 사업에 대해 동문들에게 알렸고, 김수정(38기) 글로벌 오페라 단장이 감동한 갈라 디너쇼가 2부에 이어져 아름다운 성악과 흥겨운 피아노 연주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3부에는 트로트 가수 태

진아와 가수 겸 개그맨 ‘컬투’의 멤버 김태균이 출연해 모임의 즐거움을 더했다.

김희철 회장은 “바쁜 연말연시에도 열정과 사랑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코로나19 역경을 잘 이겨낸 멋진 우리 자신에게 큰 박수 보내고 싶다. 동문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SPARC동창회는 또 11월 7일 인천 청라 베어즈베스트CC에서 ‘동창회장 배 자선 및 40기 환영 골프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참석 규모인 160명의 동문이 함께 친목을 다지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에 동참했다.

**상대동창회**

## 성기학 동문 창녕 고택·대가야 박물관으로 나들이

**고령·창녕 1박 2일 여행**

상대대학동창회(회장 조문순)가 작년 11월 11~12일 이틀 동안 경남 창녕의 성씨 고택과 우포늪, 경북 고령의 대가야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가을 여행을 다녀왔다.

창녕 성씨 고택은 성기학(무역66-70) 영원무역 회장의 문중 가옥으로 1929년에 지어졌으며 안채와 사랑채, 곳간 2동, 대문채, 변소 등 여러 개의 건물로 이뤄졌다. 전통한옥을 기반으로 부농 주택의 실용적 요소와 당시 외래 건축의 영향이 절충된 근대 한옥이다.

장식적 요소가 풍부하고 벽장, 반침 등 수장 공간을 많이 갖추고 있으며 실내 화장실, 서양식 도어, 장마루로 된 응접실 등에서 외래 주거 문화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성기학 동문의 고조부 때부터 자리잡은 터라 고조부부터 성 동문까지 누대에 걸쳐 가옥이 더해져 방이 무려 200칸에 달한다. 성 동문이 직접 동문들을 맞



창녕 성씨 고택에서 성기학 동문(가운데 파란 점퍼)이 안내를 하고 있다.

아 고택을 안내했고, 만찬과 기념품을 제공했다. 이번 여행엔 조문순(경제73-77) 회장, 박영안(경영72-76) 전 회장을 비롯해 59학년부터 91학년까지 동문 25명이 참가했다. 참가 동문들은 창녕 성씨 고택으로 가는 길에 고령군 대가야 박물관을 들르기도 했다.

대가야박물관은 구석기시대부터 근대까지 대가야와 고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전시실을 갖췄다. 건물 외형 또한 대가야양용 모양처럼 직

경 37미터, 높이 16미터 규모의 초대형 돛식 구조를 띤다. 동문들은 학예사의 해설과 함께 가야 유물을 견학했으며 고분 동산을 산책하면서 가을 하늘을 만끽했다. 여행 이틀 차엔 우포늪을 답사하고 진흥왕 순수비를 둘러봤다.

송덕호(경영78-82) 동문은 상대동창회보에 실린 소감문에서 “여행을 함께 하면서 아내에게 짐수 많이 뺐다”며 먼밀한 계획과 준비를 해준 상대동창회에 감사하다고 썼다.

미래동창회

젊은 작가 육성...베리타스미술상 시상



권영걸 회장(왼쪽 첫째)과 베리타스미술상을 받은 동문들이 시상 후 포즈를 취했다.

미래대학동창회(회장 권영걸)가 12월 8일 관악캠퍼스 예술복합연구동 오디토리움에서 베리타스미술상 시상식을 열었다. 베리타스미술상은 미래동창회가 젊고 유망한 작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21년 제정했다.

올해는 이채원(동양화19입), 우현주(서양화21입), 홍예준(조소17입), 김재환(금속공예17입), 이재현(도자공예17입), 김해인(시각디자인18입), 유희정(산업디자인18입), 오지원(영상매체18입) 학생 등 전공별 1명씩 총 8명을 선정했다. 수상 학생들에게 '베리타스미술상전' 참가 자격과 함께 미

술계 등단의 기회가 부여된다.

권영걸(응용미술69-76) 회장은 축하사에서 "모교 미술대학은 1946년 국내 최초의 미술대학으로 설립돼 대한민국 미술교육의 모범을 보여왔으며, 우리나라와 세계 미술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배출해왔다"며 모교 미래동문으로서의 자긍심과 동문이 되는 것의 의미를 강조했다.

제2회 베리타스미술상 수상작가전은 4월 16~25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되는 미래동창회 최대 전시회 '2023빌라다르'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FIP동창회

송년회에 동문 120명 참석

미래융합기술과정(FIP)동창회(회장 윤무영)가 작년 12월 6일 그랜드인더컨티넨탈호텔 파르나스 2층 오키드룸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120여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총회로 시작해 만찬 및 신입 회원 소개와 시상식 등을 진행한 1부, 포럼 발표 및 특별공연으로 구성된 2부, 행운권

추첨이 이어진 3부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 단체 사진 촬영 및 폐회로 마무리됐다.

2002년 출범한 FIP특별과정은 IT기반의 융합기술 교육을 통해 전문가형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주목받으면서 대기업 입원, IT분야 중견기업 대표뿐 아니라, 업종 경계를 넘어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많이 찾는다.

언론정보동창회

남인용 신임 회장 선출



언론정보동창회(회장 박기성)가 12월 23일 관악캠퍼스 64동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남인용(신문86-90·사진) 부경대

학교 교수회장을 신임 동창회장으로 선출했다. 남 신임 회장은 언론정보학과 대학원동창회장도 맡게 된다.

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남 신임 회장은 세계트리플헬릭스미래전략학회(WATEF) 학회장, 한국광고학회 미

디어경제와 문화 편집위원장, 연세 FM공동체라디오 개국준비위원장, KBS부산방송총국 시청자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한국소통학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문가이다.

1974년 입학생을 1기생으로 1975년 신문학과로 출발한 언론정보학과는 2025년 학과 창설 50주년을 맞게 되는데, 남 신임 회장은 언론정보학과 창설 50주년 행사를 충실하게 준비함으로써 언론정보학과 동문들의 저력을 적극적으로 알릴 기회로 삼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혔다.

상록비즈니스포럼

송년회서책 선물 이벤트

농생대동창회 산하 상록비즈니스포럼(이하 상록포럼, 회장 김상석)이 작년 12월 15일 참배나무골 식당에서 송년회를 열었다. 상록포럼은 농생대 동문 중 사업에 관심 있는 동문이면 어느 분야에 종사하든 관계없이 누구나 모여 사회 경험을 나누고 신선한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으로 2020년 출범했다. 산업계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물론 창업에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자문역할 또한 기대된다.

김상석(농생물68-72) 회장, 황계순(농가정79-83) 사무국장을 비롯해 동



김상석 회장이 송년회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송년회엔 참석 동문들이 각자 추천 서적을 준비해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미처 책을 챙기지 못한 동문은 자신의 사업 노하우를 발표하기도 했다.

배용석(식품공학93-98) 동문이 스타트업디앤디 건강식품을 참석 동문 모두에게 선물했다.

안동지부동창회

불우 청소년 초청 음악 나눔 행사로 훈훈한 세밑



12월 27일 안동그랜드호텔에서 안동지부 동문들과 경안신육원 청소년들이 음악회 관람 후 기념촬영을 했다.

학생들에게 서울대 불펜 선물

안동지부동창회(회장 이동찬)가 아동복지·양육시설인 경안신육원 청소년들을 초청해 나눔음악회를 개최했다. 안동그랜드호텔에서 12월 27일 열린 이날 행사는 안동지역 50여 동문들의 송년 행사를 겸했다. 본회에서는 이승무 사무총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행사를 기획한 이동찬(ACPMP 8기 삼광토건 대표) 회장은 "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뱉지 못했던 동문들과 지역 청소년들이 어우러져 따뜻한 겨울밤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경안신육원 이은주 원장은 "우리 시설 37명의 아이들과 여러 선생님들을 초청해 맛있는 식사와 멋진 공연을 보 여주셔서 감사하다"며 "나눔과 배려할 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에서 준비한 서울대 불펜을 청소년들에게 선물했다. 성은모(교육04-09 안동대 교육공학과 교수) 사무국장장은 "서울대학교 마크가 새겨진 불펜이 학생들에게 큰 희망의 선물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권금희씨의 시낭송으로 문을 연 음악회는 장혜지 소프라노, 원유대 테너, 박

용명 테너, 조철희 테너, 권대일 바리톤의 뮤지컬, 오페라, 영화 음악 등 다채로운 곡으로 겨울밤을 수놓았다.

한편 이날 안동지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이준원(전자공학72-76 안동대 명예교수)·정운선(농가정76-80 안동대 명예교수) 전임 회장과 안규소(치의학66-72 치과원장) 고문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안동지부의 회원은 약 100여 명으로 다수가 안동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동찬 회장이 지난해 5월부터 이끌고 있으며 김봉현(대학원04-09 부부한의원 원장) 부회장, 성은모 사무국장이 돕고 있다.

AMP동창회

양수화·김형진·권모세·박도봉 동문 AMP대상

최고경영자과정(AMP)동창회(회장 윤철주)가 1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년교례회 및 제22회 서울대AMP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양수화(39기) 글로리아오페라단 이사장 겸 단장, 김형진(51기) 세종텔레콤 회장, 권모세(64기) 아일랜드 리조트 회장, 박도봉(68기) 알루코 회장 등 4명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수화 동문은 1991년 글로리아오페라단을 창단, 31년간 한국 오페라 발전은 물론 순수 예술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했다. 미국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춘향전'과 오페라 갈라콘서트를 개최해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알렸다. 김형진 동문은 1990년 흥승기업을 설립한 뒤 1998년 세종증권 인수, 금융인으로 거듭났으며 2007년



양수화

김형진

권모세

박도봉

EPN을 인수해 세종텔레콤으로 개칭하고 2011년 온세텔레콤을 인수, 유무선 통신사업자로 변신했다. ICT 산업에는 물론 동창회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1986년 시화산업을 설립한 권모세 동문은 2007년 경기도 안산의 아일랜드 CC를 운영, 수도권 최고 수준의 친환경 골프장을 일궈냈다. 2007년 재단법인 아일랜드를 설립해 15년간 대부도 지역

불우학생 및 독거 노인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복지사업을 펼쳤다.

박도봉 동문은 1988년 장안종합철거리를 설립했고 2002년 동양강철, 2005년 고강알루미늄과 현대알루미늄을 인수함으로써 국내 최대 알루미늄 소재 전문기업 알루코그룹을 일궈냈다. '박도봉 글로벌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열어 해외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치대 야구부

창립 40주년 기념식 열어

치대 야구부 '덴바(DENBA; Dentist+Baseball)'가 11월 19일 서울 성북구 소재 삼청각 일화당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성창(61-67) 야구부 명예지도교수를 비롯해 창립멤버 신동훈(78-84)·이광기(79-83)·박병식(80-85) 동문 등 9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지나온 40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50주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덴바의 40년을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고학년 동문은 그때 당시의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다.

향후 비전으로서 장학사업을 위한 기초 토대 마련과 야구부 후배들에게 임



서울 성북구 소재 삼청각 일화당에서 열린 치대 야구부 '덴바' 창립 40주년 기념식 단체 사진.

상 개원에 대해 조언하는 프로그램의 마련, 야구부 OB·YB 매니저의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날 행사에서 유명상(06-10) 동문이 OB 회장에, 방승현(전기공학02-06·치의학09-13) 동문이 총무에 선임됐다.

1982년 창설된 덴바는 치대 동문과 재학생이 함께 운동하는 동아리로, 개강과 함께 매년 시즌제로 운영되는 '스누

리그' 1부 리그에 참여해 모교 내 여러 야구팀과 경기한다. 매년 5월 열리는 전국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축제 중 '전치제 야구대회'에서 2012년 우승을 거둔 바 있으며 '우승팀 10년 주기설'에 따라 다시 한번 우승을 목표로 뛰고 있다. 모교의대, 연세대의대, 경희대 치대 등 타 대학 야구 동아리와의 친선 경기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캉캉’에서 ‘도레미송’까지 노장들의 1시간 30분 열연

모교 명예교수 취미 동아리  
MAHA

지난해 11월 29일 저녁, 서울 학동 삼익아트홀에서 의미있는 음악회가 열렸다. 서울대 MAHA 브레멘음악대의 제1회 하모니카 정기연주회. 학문적 카리스마를 떨치던 모교 명예교수들이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하모니카를 입에 물고 관객 앞에 섰다.

현정오(농생물66-70)·윤여창(임학 74-79) 명예교수의 ‘생명의 빛’(아우네스 곡) 연주로 시작해 음악대원 전원의 ‘캉캉’(오펜바흐 곡) 합주, 그리고 앵콜 곡 ‘도레미송’까지 더해지며 1시간 30분에 걸친 첫 연주회가 가족 지인들의 열렬한 박수갈채 속에 막을 내렸다.

이번 연주회에 현정오·윤여창·안희수(지구과학교육61-65)·김하석(화학 63-67)·최성재(사회사업66-70)·황용승(의학69-75)·박종신(섬유공학75-79)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코로나 기간, 줌 레슨 등을 통해 하모니카를 익혔다. 선생님은 이윤석(작곡17졸) 하모니시스트, 노르웨이 음악원 역사상 최초 하모니카로 입학한 최정상 연주자다.

음악에 문외한인 이들은 매주 1회 한 시간씩 연습하며 C장조의 대중가요부터 간단한 클래식 곡까지 익혔다. 황용승 동문은 두바이에서 지내면서 새벽 2시에 일어나 줌 레슨에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다.



11월 29일 삼익아트홀에서 열린 브레멘음악대 제1회 하모니카 연주회에 참여한 윤여창·안희수·최성재·이윤석·김정은·김하석·박종신·현정오·황용승 동문, 김한길 피아니스트(왼쪽부터)

대원 중 가장 열심히 참여해 이윤석 스승에게 감동을 준 최성재 동문은 “어디서든 쉽게 들고 다니며 부담 없이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전했지만, 처음엔 악보 읽기도 쉽지 않았다”며 “어설프긴 하지만 연주회까지 열고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과 함께 뭔가를 했다는 데 큰 기쁨을 느낀다”고 했다. 노령화 사회 복지 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악기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노년들의 정신건강에 가장 좋다”고 덧붙혔다.

윤여창 동문은 “홀로 있을 때 즐길 수 있는 악기를 배워 좋다. 좀 더 익혀 친구, 가족 모임에서 한두 곡 뽐낼 수 있기를 꿈꾸고 있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연주회 사회를 맡은 김정은(간호73-77) 명예교수는 ‘MAHA(My Active & Healthy Aging·이하 마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연주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하’

의 리더이기도 하다. ‘마하’에는 산스크리트어 ‘마하(大)’의 ‘위대하다’, 속도 단위 ‘마하(Mach)’의 의미도 담겨 있다. ‘활동적이고 건강한 은퇴 후의 시간을 같이 만들어 가자’는 목적을 갖고 2020년 가을 시작된 모교 명예교수들의 동아리 활동이다. 현재 3기까지 34명의 명예교수들이 참여해 브레멘음악대를 비롯해 자서전 쓰기, 건강 걷기, 살롱(한달에 한번 모여 소소한 이야기 나누는 모임), 전공 연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정은 리더는 “은퇴와 함께 사회에 대한 더 이상의 큰 책임과 의미를 덜어내고 이제부터라도 자신에게 더욱 충실한 시간을 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마하 프로젝트를 실천하게 됐다”며 “마하는 항상 새로운 길을 떠나는 원정대의 의미를 담아 ‘마하원정대’, 명예교수님들을 ‘마하원정대원’이라고 부른다”

## 제1회 하모니카 연주회 열어 김정은 간호대 교수 리더 맡아 “의미있는 노년의 활동 응원”



고 했다.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반지원정대의 주인공처럼.

브레멘음악대는 그림 형제의 동화 브레멘음악대에 등장하는 가족들이 늘어 쫓겨나지만,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을

갖고 브레멘의 음악대가 되는 모험담에 서파왔다.

김 리더는 “이번 연주회에 의도적으로 제1회 정기연주회라는 제목을 붙였던 이유는, 첫 데뷔는 떨리는 마음으로 겨우 했지만, 앞으로는 더욱 멋진 연주회를 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 리더는 마하 프로그램으로 반려동물, 록밴드, 도예, 명화감상, 국궁교실, 와인클래스 등도 기획했다고 했다.

그는 “올해 4년 차에 접어드는 ‘마하’가 국가, 사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모교 명예교수님들이 자신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데 비비고 기필수 있는 작은 언덕으로 자리매김 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 리더는 가야금, 승마, 국궁, 검도 등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수승마클럽 회장이기도 하다. 김남주 기자

# “고금리, 부동산 거래 절벽...상반기엔 허리띠 단단히 매야할 것”

수요특강  
허용석(대학원86-88)  
현대경제연구원장

금·달러·구리·유가·천연가스·기준금리·GDP·대외외환·경기선행지수...

허용석(대학원86-88) 현대경제연구원장이 스크린에 띄워진 수많은 경제지표를 마치 별자리처럼 이어가며 그의 미를 분석하고 2023년 경제를 전망했다. 작년 12월 28일 서울 마포구 SNU 장학빌딩에서 열린 본회 수요특강을 통해서다.

허 원장은 “1990년부터 지난 30여년을 돌아보면, IMF 외환위기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발생 후 3년 만에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며 “코로나 위기도 내년까지 잘 버티면 같은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년 우리 경제는 미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거시적으로 꽤 괜찮았습니다.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가 성장률을 견인했죠. 코로나19 대응 기조가 워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민간 경제 활동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도 한 요인입니다. 지난 3분기까지 3%대 성장을 유지했으니까 4분기 경제가 급락하지 않는 한 정부 목표치인 2.6% 성장 은 무난히 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낙관할 수만은 없다. 회계 기준의 차이 때문에 경상수지가 아직 흑자를 유지하곤 있지만,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무역수지 적자의 요인은 전통적으로 원유·석탄·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섹터. 물량은 늘지 않았는데 가격이 두 배 이상 뛰었다. 반면 반도체·LCD·무선통신 기기 등 수출 주력 상품의 실적은 부진했다. 국내 상품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의 무역 또한 2022년 적자로 전환됐다. 수입은 천천히 주는데 수출은 빠르게 줄어든 것. 게다가 기술 격차를 바짝 좁혀 오고 있어 올해 대중 수출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

“저는 2023년 세계 경제를 지배할 리스크로 ‘PPX’를 꼽습니다. 파워(Power)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과 푸틴(Putin)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파워의장은 2021년 9.1%에 달했던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금리를 4.5%로 올려 7.1%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실업률이 괜찮아요. 내년엔 더 올릴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기준금리를 3.25%로 올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6.3%에서 5.0%로 떨어뜨렸는데, 실업률이 아직 괜찮거든요. 이창용(경제80-84) 한국은행 총재도 여지가 있는 거죠.”

허 원장은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상황을 짚으며 “지난 20년 동안 금리 역전



## 한미 금리 역전, 2년 넘으면 곤란 중국에서 부동산 전체 GDP 30% 러-우 전쟁·중국 부동산 유의

상황이 3번 있었지만,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경상수지가 흑자를 꾸준히 유지하면 그렇게 금방 달리가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리 역전의 폭이 1%P 이상 벌어지거나 2년 넘게 길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 따라 올릴 수밖에 없고, 금융위기가 있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상승 기간은 보통 2년, 길어야 3년 정도 될 것”이라며 “부채 관리에 참고하시라”고 덧붙였다. 허 원장에 따르면 고환율이 유지되는 기간은 보통 6개월, 길면 1년 6개월로 금리 상승기보다 짧다.

“카터 대통령 때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을 역임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그의 저서 ‘거대한 체스판’에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면 유라시아 대륙의 국가들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러시아·중국·인도·독일·프랑스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나라로, 우크라이나·아제르바이잔·터키·이란과 함께 우리나라를 화약고 같은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의 일로 봐선 안 됩니다. 브레진스키는 한국을 ‘미국의 힘이 아시아에 내려앉는 횡대’로써 중요성을 적시했어.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양국 사이에서 가장 곤란해질 나라는 한국이 될 것입니다.”

2022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연임하면서 10년 주기로 이뤄졌던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권력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 시 주석이 주창한 ‘공동부유(共同富裕)’ 같은 사회주의적 성격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세게, 얼마나 넓게 펼쳐지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달라질 것이다. ‘제로코로나 정책’도 변수다.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인해 소비가 크게 위축, 우리 상품의 대중 수출량 감소의 한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도 워드 코로나로 감염병 대응 기조를 바꾸면서 중국 내 민간 소비가 기지개를 켜 전망이지만, 확진자가 대폭 늘고 있어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전체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큼니다. 지방 정부는 땅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가계자산 구성에서도 부동산 비율이 약 75%를 차지하죠. 그런 중국의 부동산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부동산도 심각합니다. 거래 절벽에 부딪쳐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어요.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셜(PF) 규모가 150조에 달합니다. 적어도 2023년 상반기에는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셔야겠습니다.”

본회는 이날 강연에 참석한 동문 70여명 전원에게 허용석 원장의 추천 서적 ‘팩트풀니스(Factfulness) 한스 로슬링 저, 이창신 역’를 선물했다. 나경태 기자

### 동문 서비스1: 제휴 호텔·리조트·펜션 등

동문과 동문가족(배우자와 이들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이 제휴 호텔 리조트 펜션 등 이용 시,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해 연회비 또는 평생 회비를 납부하신 동문 대상, 회원우대증과 동반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 한국교직원공제회·The-K호텔 앤 리조트

● 일반이용시 (단위: %)

구분	The-K호텔 앤 리조트				비고
	서울	경주	지리산	설악산	
객실	40	주중(50) / 주말(40)	50	50	성·비수기 구분 없음
식음료	10	-	-	-	식사 및 음료 할인
휘트니스	50	5000원 할인	30	-	서울호텔은 투숙시 할인
세미나	30	-	-	-	회의장 렌탈료 할인

구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비고
객실	주중(60) / 주말·성수기(50)	
식음료	10	식사 및 음료 할인

※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중복 할인 불가)

● 휴스테이(롱스테이) 이용시 (단위: 원/일)

구분	The-K호텔 앤 리조트			The-K 서드에이지
	설악(20평)	지리산(20평)	경주(일반실)	
3~7일	55000~90000	90000~130000	95000~120000	30000
8~30일	50000~85000	50000~90000	80000	

- ※ 호텔 및 롱스테이 이용 관련 유의사항
- 평형별, 요일별, 숙박일자 및 예약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비·성수기 일자 및 요금 매년 변동
  -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 대상기관 회원 및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회원우대증 등) 제시 필수

※ 예약및문의: 서울 02-571-8100, 경주 054-745-8100, 지리산 061-783-8100, 설악 033-639-8100, 제주 064-729-8100  
- 서드에이지: 입소 시 보증금의 5% 할인 (예약: 055-530-8100)  
- 에다할상조: 가입 시 최종 8회분 납입 면제, 단, 전화 상담 가입에 한함 (예약: 1566-6644)



노보텔 엠베서더호텔 강남

#### 엠베서더 호텔 그룹

구분	객실	식음료	연회	예약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	10%	10%	5%	02-567-1101
엠베서더 서울 풀만	10%	10%	-	02-2275-1101
경원재 엠베서더 인천	10% 주중(일-목)	투숙시 10% Room svc 제외	미팅룸 대여 15%	032-729-1101
이비스스타일엠베서더강남	10%	10%	10%	02-3011-8888
이비스스타일엠베서더명동	10%	10%	10%	02-6020-8888
이비스 엠베서더 명동	10%	10%	10%	02-6361-8888
이비스 엠베서더 인사동	10%	-	10% 대여에 한함	02-6730-1101

※ 상기 요금은 정규요금을 기준으로 한 할인율이며, 중복 할인은 불가함(객실은 홈페이지에서 code[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입력 후 예약 가능, 식음 및 연회는 전화 사전예약 필수,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호텔 내 직영이 아닌 임대 업장 및 외부 서비스의 경우 할인 대상에서 제외

#### 라마다 군산 호텔

(단위: 원)

객실타입	정상요금	주중(일-목)	주말(금-토)	연휴/성수기
스탠다드 더블/트윈	220000	90000	110000	125000
스탠다드 패밀리트윈/디럭스더블	242000	95000	120000	135000
디럭스패밀리트윈/온돌	264000	105000	130000	145000
디럭스 스위트더블/패밀리 스위트	450000	180000	220000	250000
연휴/성수기 기간안내	2023년: 1/20~1/23, 4/28~5/1, 5/4~5/7, 6/2~6/5, 7/21~8/19, 9/27~10/2, 10/6~10/8, 12/22~12/24, 12/29~2024년 1/1			

※ 세금, 봉사료 포함가,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및 중복 할인 불가,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063-441-8000

#### 하늘계곡연수펜션

(단위: %)

구분	객실	식음료	세미나	비고
총동창회 할인율	40	10	30	- 객실: 성·비수기 구분 없음 - 세미나: 회의장 렌탈료 할인

※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및 중복 할인 불가,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043-653-2013, www.skyp.co.kr

#### 고급 식당 할인 혜택

- **필경재 (한정식 전문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  
※ 예약 및 문의: 02-445-2115 (서울 강남구 수서동 광평로 205)
- **슈타인도르프 (수제맥주 전문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  
※ 예약 및 문의: 02-422-9000 (서울 송파구 오금로15길 11)
- **램스에비뉴 (양고기 음식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음료 제외)  
※ 예약 및 문의: 02-303-8980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 결혼정보업체 듀오 10% 할인

- 동문이 가입할 시 10%, 동문 가족은 5% 할인 적용  
※ 문의: 1577-8333

### 동문 서비스2: 건강검진 협약병원

동문과 동문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은 협약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최대 50%까지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해 연회비 또는 평생 회비를 납부하신 동문 대상, 회원우대증과 동반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 10~30% 감면

서울대학교병원	02-2072-3333	건강검진 10% 우대, 배우자의 부모 제외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02-2112-5500	건강검진 10% 우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588-3369(내선2번)	건강검진 10% 우대, 배우자의 부모 제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02-870-3333(내선2번)	건강검진 10% 우대
국립암센터	031-920-1212	암검진 10% 우대
강남세브란스병원	1899-7588 ydmchc@yuhs.ac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1588-8668(내선1번)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고려대학교구로병원	1577-9966(내선2번)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배우자의 부모 제외
고려대학교안암병원	02-920-5106, 5491, 6677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배우자의 부모 제외
대림성모병원	02-829-9357, 9359, 9317	건강검진 및 비급여 진료 20% 우대
한국원자력의학원	02-970-1791~3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장례식장 15% 우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031-910-7027~8(검진) 031-910-7000(비급여)	건강검진 10% (1~2월 30%) 우대 비급여진료 10% (20만원 한도)
명지병원	031-810-6383	건강검진 20~30% 우대
제천 명지병원	043-640-8450/8451	비급여진료 10% 우대
인천사랑병원	032-457-2800	(재료대 및 약제비 제외)
중앙대학교병원	6299-2114	기본건강검진 20%, 치과 비급여진료 10%, 장례식장 안치료 및 빈소 10%(상조회 가입한 경우 5%)
CM병원	02-2635-8275 070-4698-7817	종합검진비 10%(1~3월 20%), 비급여진료 10%
아주대학교병원	031-219-4000	종합검진비 10%(1~3월 20%)
에이지플러스양지병원	070-4665-9137	종합검진비 10%
화홍병원	031-8021-6947~8(검진) 031-8021-6958(비급여)	종합검진비 20% 비급여진료 10%

#### 최대 50% 감면 (일반검진 25만원 / 종합검진 35만원 / 정밀검진 50만원)

구로성심병원	02-2067-1500		
메디플라워 헬스케어	02-3475-7100(내선1번)		
차용건진센터	삼성	1800-7750(내선1번)	일반검진 제외
	일산	031-782-8888	
	분당	031-780-5050	
	청담차용(프리미엄)	02-3015-5001	
한국의학연구소(KMI)	1599-7070	본원(광화문), 여의도, 강남, 수원, 대구, 부산, 광주	
한신메디피아	02-596-4565(내선2번), 3476-7760		

### 동문 서비스3: 경조 서비스

당해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동문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본인 부담)

#### 화환·조화, 경하기·근조기

구분	근조기	경하기	조화·화환	영정바구니
서울	25000원	30000원	80000원 (전 지역 동일)	100000원 2개 세트 (전 지역 동일)
서울근교	30000원	38000원		
수도권	38000원	42000원		
경기외곽	42000원	45000원		
지방	48000원	48000원		
제주도	80000원	80000원		

#### ● 신청\_ 경조 서비스 신청

신청 및 문의: 전화 02-702-2233

#### ● 입금\_신청 후 비용 계좌로 입금

계좌번호는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 배송\_입금이 확인되면 3~4시간 안 배달

도서지역과 교통불편지역은 요금 및 소요시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회원우대증을 제시하시면 우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동창회 평생회비 또는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님은 회원우대증을 모바일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휴사 이용 시 본 우대증을 제시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모바일 회원 우대증 발급방법

-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발급 화면으로 연결
- 또는 홈페이지 www.snua.or.kr 첫 화면 하단 「회원우대증」 배너 클릭 (회원가입 필요)
- \*스마트폰에서 접속하시면 편리합니다.
-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가입을 원치 않으면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우대증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 \*문의: 총동창회 사무처 대표전화 02-702-2233 문자전용 1877-2039

#### 【회원우대증 바로가기】



### Mall SNUA 회원 6000명 임박

본회 동문 전용 쇼핑몰 'Mall SNUA'가 작년 8월 31일 오픈한 이후 빠른 성장을 거듭하면서 1월 중 총 회원 수가 6000명을 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으로 가입한 동문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 이하 젊은 세대가 77%를 차지한다.

회원 수가 증가한 요인으로 입점 업체의 지속적 확대와 다양화가 꼽힌다. Mall SNUA에는 현재 60여 개 업체가 입점했으며 2300여 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많은 동문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열(응용수학68-72) 사업단장은 "2월 초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3'이 발매되면 우리 물에 최적가로 입점할 예정"이라며 "저렴한 가격이 최신, 최고 사양의 스마트폰을 지급제로 개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all SNUA의 인기 판매상품을 순서에 상관없이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삼성전자:**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갤럭시 북, 레이저 복합기 LG전자: 노트북, 드럼세탁기, TV, 코드제로 청소기
- **정관장:** 건강식품
- **어반트:** 다림질 필요 없는 남성 정장 셔츠
- **깨끗한 나라:** 리브레 식기세척기용 친환경 세제, 물티슈
- **신미사:** 족저근막 통증완화 슬리퍼
- **삼익악기:** 디지털 피아노
- **위니아전자:** 김치냉장고
- **쿠쿠전자:** 전기밥솥
- **닥터닥터스:** 멀티비타민
- **365우역:** 히말라야 고산지대 흑마늘
- **볼빅:** 크리스탈 콤비 골프공
- **바이네르:** 신사화, 골프화
- **삼원가든:** 기프트카드
- **농생대몰(SNUA Mall):** 함양 벌꿀, 흑홍 생강청, 제주 무농약 감귤, 맛있는 약국두유

#### 알림

### 2023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 시상식

2023년도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제25회 관악대상 시상식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3년 3월 24일(금) 오후 6시
  - **장소:**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서울 소공동)
  - **행사내용:**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 시상 등
  - **참가비:** 5만원
  - **참석범위:** 사전 예약하신 동문 500명 이내
  - **참가 신청 기간:** 2023년 3월 3일(금)까지
-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하여 꼭 사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및 문의: 대표전화 02-702-2233

#### 2.3월 행사 안내

행사 문의: 02-702-2233

- **수요특강**  
일시: 2월 22일(수) 오전 7시 30분  
장소: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공덕역 8번 출구)  
강연자: 임재준 서울대 의대 교수  
국가미래전략원 팬데믹 클러스터 책임교수  
주제: 코로나-19 팬데믹과 대한민국: 성장과 재연  
참가비: 2만원 (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등산대회**  
일시: 2월 23일(목) 오전 10시  
산행지: 과천서울대공원 둘레길  
집합장소: 4호선 대공역 2번 출구  
참가비: 2만원 (오찬 및 기념품 제공)
- **조찬포럼**  
일시: 3월 9일(목) 오전 7시 30분  
장소: 플라자호텔 1L층 그랜드볼룸 (시청 앞)  
강연자: 박 진 외교부 장관  
참가비: 5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 **수요특강**  
일시: 3월 22일(수) 오전 7시 30분  
장소: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공덕역 8번 출구)  
강연자: 전영애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  
역백서원 원장  
주제: 파우스트의 21시간 완본판 공연  
참가비: 2만원 (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캠퍼스 건축가’ 도입 일관성 있는 관리를

서울대 부문별 중장기 발전계획 ⑤멀티캠퍼스

### 관악·연건 집중 시설 분산하고 미활용 법인재산 적극 활용해야

모교는 법인화 이후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 외에 평창캠퍼스와 시흥캠퍼스를 준공하면서 멀티캠퍼스 시대를 열었다. 광교에 있는 융합과학기술대학원과 수원에 있는 목장도 또다른 멀티캠퍼스 자산이다. 다양한 멀티캠퍼스의 수만큼 캠퍼스별 특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라는 숙제도 늘어났다. 최근 발표한 중장기발전계획에 이러한 고민이 담겼다. 지금의 캠퍼스 관리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지속가능한 미래 지향적 멀티캠퍼스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 상황은 노후화와 포화 상태로 요약할 수 있다. 연구·교육시설만으로 가득차 지속사 등 복지 시설을 지을 여력이 없다. 건축 연한이 50년에 근접한 건축물도 증가해 건물 안전 문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발전계획은 관악캠퍼스의 경우 신축을 지양해 더 이상 밀도를 높이지 않고,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위험 시설물과 연구시설은 클러스터화하고 재배치를 통해 영역별 안전관리 지점과 위험물질 분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모교가 정문광장과 잔디광장을 새롭게 조성한 것도 보행자 우선의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구

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서울대는 매년 서울시 소재 건물 가운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로 꼽혀 왔다. 친환경 탄소중립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건물별로 탄소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캠퍼스 내 전기차 셔틀과 전기차 충전소 확충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또 녹지를 충분히 확보해 온실가스 흡수원을 늘려야 한다고도 썼다.

관악캠퍼스에 집중된 교육·연구 시설 중 일부는 평창, 시흥 또는 수원캠퍼스로 분산을 꾀할 수 있다. 그 이후 캠퍼스 특성에 맞게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전계획의 제안에 따르면 관악캠퍼스는 모교 교육·연구·행정의 중심으로 융합 교육과 연구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연건캠퍼스는 의학·치의학 교육·연구의 중심이자 의료·보건·바이오 산학협력 거점으로 삼되 교육 및 기초 연구, 융합 연구 관련 시설은 타 캠퍼스로 이전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평창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농축산 분야 연구 및 산학협력 거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시흥캠퍼스는 글로벌인재학부 및 국제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설립해 모교의 국제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미래 모빌리티 연구 등 미래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시설이 있는 만큼 관련 연구 및 산학협력 거점 역할도 할 수 있다.

각 캠퍼스가 지역사회와 상생을 염두

에 뒤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모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물적 자원을 대중에게 개방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제 활성화와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이들 멀티캠퍼스가 서로 단절되지 않도록 이동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교류 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썼다. ‘멀티캠퍼스 부총장제’ 도입을 통해 멀티캠퍼스를 관리하고, ‘캠퍼스 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캠퍼스 계획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자고도 제안했다.

발전기금은 모교가 보유한 법인 자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짚었다. 법인화 이전 모교는 남부학술림(전남 광양 구례), 태화산학술림(경기도 광주), 칠보산학술림(수원시, 화성시) 등 학술림 세 곳과 관악수목원 등을 관리했다. 그러나 법인화 이후 서울대로 무상양여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과 갈등을 겪었다. 발전계획은 대학 본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 정부와 협의하고 지역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썼다.

모교는 관악캠퍼스 정문과 후문 일대, 수원캠퍼스, 평창캠퍼스, 시흥캠퍼스 미개발지 등 미활용 법인자산을 다수 보유했다. 2019년 3월 모교 법인재산 중 미활용 건물은 36개 동, 미활용 토지는 254필지 117만 9353㎡에 달한다. 발전계획은 모교가 보유한 미활용 법인자산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개발, 재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의 자체 재원확보를 통해 법인 소유 부동산을 복합개발하거나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박수진 기자

## 정시모집 최종경쟁률 3.18대 1

### 신설 역사학부 4.40대 1

지난해 12월 31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모교 정시모집 최종 경쟁률이 3.18대 1을 기록했다. 일반전형은 3.22대 1의 경쟁률, 올해 신설된 지역균형전형 경쟁률은 2.85대 1이었다. 1345명을 모집하는 데 4282명이 지원해 4.13대 1이었던 전년도 정시 경쟁률보다 하락했다. 올해 정시 선발인원은 지난해 1037명에서 300여명 늘어났지만 지원자는 예년과 비슷했다.

이번 정시모집은 전형과 모집 단위, 평가방법 등에 변화가 있었다. 모교는 올해 정시 일반전형에서 수능 성적 외에 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교과평가를 처음 실시했다. 수시모집에만 있던 지역균형전형도 신설했다.

지역균형전형은 수시 지역균형전형과 동일하게 학교별로 2명을 추천할 수 있고 수능 60점, 교과평가 40점을 반영하는 전형이다. 올해 신설된 공대 광역, 인문대학 인문계열, 사회대 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 인류학과, 약학대학 약학계열, 의과대학 의예과,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가 지역균형

전형으로 입학생을 모집했다.

공과대학 광역은 정시 지역균형전형으로만 46명을 모집하고 115명이 지원해 2.5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과대학 광역으로 입학한 학생은 1학년 1학기가 지나면 항공우주공학과, 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산업공학과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를 통합해 신설된 인문대학 역사학부는 정원 28명 중 10명을 정시모집 일반전형으로 모집했다. 44명이 지원해 4.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사학부는 앞서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도 9명 모집에 116명이 지원해 12.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수시 지역균형전형으로는 9명을 모집했다. 역사학부 입학생은 2학년부턴 한국사학전공, 동양사학전공, 서양사학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올해 음대가 신설한 음악학과는 정시 일반전형으로 9명을 모집하는 데 34명이 지원했다. 음악사 등 이론 외에도 녹음과 영화음악, 게임음악 등 타 분야와 융합한 음악을 다루는 학과다.

## 자연대 대형강의동, 46년 만에 새단장



재건축을 마친 자연대 대형강의동 전경

모교 자연과학대학 대형강의동(28동)이 46년 만에 재건축을 마치고 새 모습을 드러냈다. 모교는 지난해 12월 15일 28동에서 개관식을 열었다.

1976년 건축한 28동 건물은 자연대 대형 강의와 학생회, 동아리 활동이 주로 이뤄지던 곳이다. 시설 노후로 44년 만인 2020년 4월 재건축을 시작해 지난해 10월 준공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655㎡였던 옛 건물은 재건축하면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876㎡로 확장됐다.

재건축 전 28동은 겨울은 물론 여름에도 실내온도가 낮아 학생들 사이 ‘석빙고’로 불리곤 했다. 개관식 날 때 서운한 한파 속에 함박눈이 내렸지만 새단장한 28동 실내는 쾌적했다. 250명 규모의 대형강의실 2개, 150명 규모의 중형 강의실 4개, 학생 자치 공간 등을 넉넉히 갖췄고 직경 13m 돔 스크린이 있는 천체투영관도 자랑거리다. 반구형 스크린에 천체와 천문 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100석 규모의 극장으로, 일반대학 내 유일한 천체투영관이다. 추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사라진 옛 28동의 흔적은 독특한 방식으로 남겨졌다. 재건축의 주 콘셉트를 아예 업사이클링(재활용)으로 정하고 난간과 의자 등 건물을 철거하면서 나온 폐자재를 버리지 않고 모았다. 이후 모교 미래 교수 6명이 참여해 그 폐자재로 기념품과 예술 작품 등을 만



자연대 대형강의동의 옛 모습

들었다. 옛 건물에서 쓰던 라디에이터에 조명을 달아 만든 조형물과 28동 터의 흙으로 만든 예술 작품 등을라운지에 전시했다. 또 ‘샤’ 모양이 새겨진 동소재의 옛 건물 손잡이로 트로피를 제작해 개관식에서 발전기금 기부자와 공사 관계자 등에게 수여했다. 70년대 지어진 캠퍼스 건물들의 재건축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의미 있는 시도다.

개관식이 끝나고 오세정 총장(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을 비롯한 자연대 교수들은 건물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감회가 남다른 모습이였다. 학생 시절 뻑뻑한 대형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던 추억에 젖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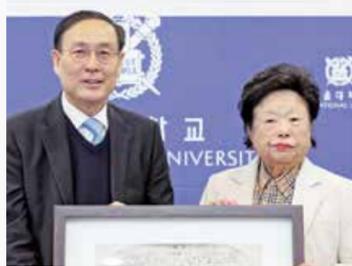
유재준 자연대 학장은 개관식에서 “70, 80년대 어려운 시절에 어렵게 공부하신 선배님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다. 한 바퀴 돌아 똑같은 자리가 미래를 위한 교육과 연구에 기초가 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건물 내에 모교 자연대 출신 민주화 역사를 기념하는 공간을 만들어 자연대 동문이 과학기술뿐 아니라 사회 참여를 통해서도 우리 사회에 기여했음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 발전기금

## 이수영 동문 15억원 기부

이수영(법학56-60 광원산업 회장·사진 오른쪽) 이수영과학교육재단 이사장이 모교에 ‘이수영과학교육재단 노벨상 육성 기금’ 15억원을 쾌척했다. 2021년 의대에 ‘내과학교실 기금’ 1억원을 쾌척한 데 이어 기부다. 이 동문은 “모교 연구자들이 노벨과학상을 받도록 과학 분야 연구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 동문은 서울경제신문 기자를 거쳐 광원목장과 광원산업을 설립하고 목축업과 모래채취업, 부동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궜다. 장학사업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71년 모교 법대장학제



단에서 장학금 모금 업무를 맡으면서다. 이후 “기부하면 행복하다”는 신념으로 사회 각지에 거액의 기부를 이어왔다. 모교 법대장학제단 이사장, 카이스트 발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동문은 특히 “언론인 활동을 통

해 과학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고 우리나라 미래라는 것을 몸소 알게 됐다”며 과학 분야를 전폭 후원해 왔다. 카이스트에 766억원을 기부했고, 2021년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이수영과학교육재단을 설립했다.

모교는 이번 기금을 매년 3억원씩 5년에 걸쳐 송윤주 모교 화학부 교수의 연구활동에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송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생체, 생체물질 합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단백질 자기조립체 합성법을 개발해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했다.

## 모교 기술지주 투자기업 150곳 돌파

모교 기술지주회사(대표 박승환)의 누적 투자기업이 150곳을 돌파했다. 지난해 51개 기업에 162억 원을 투자했고 10개 펀드 운용자금은 1000억원에 달한다. 주요 대학 기술지주회사들과 비교해도 크게 상회하는 규모로 투자기관 사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모교 기술지주회사는 모교가 100% 지분을 보유한 학내 유일 투자 기관이다. 2008년 모교의 우수 기술을 발굴해

사회사를 창업·육성한다는 취지로 설립했다. 2017년 펀드 운용사 자격을 갖추고 공격적인 투자 활동을 벌여왔다.

연간 40~50개 초기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초기기업 발굴과 육성에 앞장섰다. 지난해 51건의 투자 중 41건이 초기 투자 단계인 시드 투자와 프리A 투자였다. 2018년에는 민간과 정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우수 기술창업기업을 육성하는 팀스(TIPS)

프로그램 운영사로 선정돼 지금까지 60여 개의 팀스 기업을 발굴했다. 팀스 운영사의 추천은 우수 기업이 중기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모교 기술지주회사는 연간 20여 개 기업 추천권을 갖고 있고 매칭 성공률도 90%대로 높다.

지난해부터는 모교 공대와 협업체 대학 기부형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모교 공대가 발굴한 우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수익 일부를 모교 발전기금으로 환원하는 펀드다. 공대 동문들이 개인 투자자와 함께 참여의 의미가 깊다.

동아리 탐방

태양광자동차동아리 스누솔로

# 학부생이 만든 태양광 자동차, 3000km 사막길 도전한다

호주 태양광자동차대회 우승 목표  
“재정·기술 등 선배님 도움 절실”

‘월드 솔라 챌린지(이하 WSC)’는 4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태양광 자동차 레이싱 대회다. 각국 청년들이 직접 제작한 1인승 태양광 자동차로 6박 7일에 걸쳐 호주대륙 최북단에서 최남단을 가로지르는 사막길 3000km를 달린다. 올해 10월 열리는 이 대회에 모교 학생들이 한국을 대표해 출사표를 냈다. 지난해 6월 결성한 태양광 자동차 동아리 ‘SNU SOLO’(이하 스누솔로)다.

앞서 몇몇 국내 대학이 WSC에 나간 적 있지만 모교의 출전은 처음이다. 게다가 29명 팀원을 석박사 한 명 없이 다양한 전공의 학부생으로 채웠다. 12월 28일 관악캠퍼스 한 카페에서 스누솔로 엔지니어링팀 백수지(자유전공 4년) 씨와 비즈니스팀 팀장 김민지(영어교육 3년) 씨를 만나 ‘맨땅에 헤딩’ 하듯만 들어가는 도전기를 들었다.

2023년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학생 6명이 ‘나아가자’며 무작정 모인 것이 시초였다. “자동차 동아리라고 해본 팀원은 단 2명이었어요. 전공서적과 해외 논문, 보고서를 되는 대로 찾아 읽고 교수님들께도 자문을 구했죠. 이후 친환경에 관심 있는 친구들, 그저 자동차가 좋은 친구들이 더 모여서 팀을 이루게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손으로 차를 만들어야 해서 다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백수지)

WSC에서 태양광 자동차는 매일 오



10월 28일 모교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친환경 전기차 분해 전시회에 참가한 스누솔로.

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달릴 수 있다. 이 시간 외엔 반드시 정차해 숙박을 하면서 7일간 주행한다. 그나마도 “우승권에 들려면 5일 안에 완주해야 한다”고 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20kg까지 장착할 수 있지만 종단 중엔 태양광을 통해서만 충전할 수 있고, 태양광 패널도 최대 면적 4㎡, 최대 발전량은 전자 레인지 수준인 1000W로 제한된다. 에너지 손실원의 60%인 공기저항을 최대한 줄이고, 고속 주행과 사막의 돌풍 속에서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 사막 더위에도 운전석 에어컨은 사치다.

기계팀과 전기팀, 공기역학팀, 구조·복합소재팀으로 구성된 스누솔로 엔지니어링팀과 디자인팀이 머리를 맞대고 무게 150kg, 길이 5.0m×폭 1.4m×높이 1.3m의 날렵한 불릿(bullet) 형태 차량

설계를 완성했다. 가볍고 강도와 강성이 높은 탄소섬유복합재(CFRP) 소재로 차체를 만들고, 258개 셀을 연결한 태양광 모듈과 5.4kWh 용량의 20kg짜리 배터리를 장착했다. 차세대 전기차의 일종답게 후륜 인휠모터를 채택했다. 평균 시속 80km 이상, 최고 시속 120km 이상이 목표다.

차별점도 뒀다. “차량에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지능형 주행 알고리즘이 탑재돼요. 사람이 에너지 양을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하는 것보다 더 즉각적인 에너지 제어를 할 수 있죠. 보통은 그것도 전력 소모라 기피하지만 저희 더 효율적일 거란 계산이 있었어요.”(백수지)

스누솔로에게 이번 겨울은 중요한 시간이다. 1월 내로 자동차 설계와 부품 발주를 끝마치고 5월까지 차량을 완성

할 계획이다. 정적 테스트와 시운전을 거쳐 8월엔 항공편으로 호주에 자동차를 보내야 한다.

물론 차 한대를 만드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다. 상당한 비용과 제작 공간, 재료와 장비 등이 필요한데 학생 수준에서 해결이 어려울 때가 많아 백방으로 뛰고 있다. 차량 제작비만 2억원이 소요되고 해외 운송비, 최장 40일간 호주에 머물러야 할 팀원들의 체류비, 항공비도 동아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작여건도 그리 좋지 않다. “카본에 수지를 입히는 인퓨전 작업은 안전 시설이 중요해요. 소규모 테스트와 다르게 실물의 4분의 1 크기 모형 프로토타입을 만들려니까 안전상 학교에선 진행이 어려워서 테스트를 중단한 적이 있죠. 외부 업체를 찾아가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김민지)

기술적으로 막힐 때가 많아 카본 부속 제작, CNC 가공, 배터리 열관리, 태양광 셀 등 제작 단계 하나하나 조언이 절실하다. 차량을 만든 후에도 시운전과 각종 실험이 무사히 진행되려면 비즈니스팀의 어깨가 무겁다.

미국 스탠퍼드대, 일본 도카이대 등 강팀은 자국 기업의 기술 지원을 등에 업고 기부금으로 자금을 조달해 수월하게 출전한다. 그렇게 경험과 지식을 쌓아 더욱 발전해왔다. 스누솔로도 많은 기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주저하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소모성 투자로 보일 수 있지만 이 기술이 적용돼 큰 발전을 이루고, 미래 친환경 기술 발전을



스누솔로의 태양광 자동차 ‘도깨비’ (그래픽)

앞당기는 투자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출전한 타대 팀도 내내 아르바이트와 제작을 병행했다고 해요. 팀원들이 제작에만 집중하게 해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게 돼요.”(김민지)

최근엔 차 이름도 생겼다. 세상에 방법 같은 변화를 불러오길 바라는 뜻의 ‘도깨비’다. 전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차체와 팀복에 후원 기업의 이름을 새기고 달릴 예정이다. 개인 후원자도 원하면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요청시엔 스누솔로와 태양광 에너지 세미나를 열거나 기술 공유,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저희는 이 대회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대에서 계속 도전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꿈과 열정을 바치고 있어요. 무엇이든 선배님들께서 가진 지식을 나눠 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동차 제작은 물론, 후원자를 설득하는 방법, 사막에서 잘 지내는 법조차 저희 잘 모르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한국을 대표해 참가하는 스누솔로의 도전을 돕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0-4656-7921, solo.snu@gmail.com 박수진 기자

## AI연구원, 네이버에 인공지능 강의 공개

모교 AI연구원(원장 장병탁)이 수개월 준비 끝에 ‘모두를 위한 AI강의’ 첫 영상을 12월 20일 네이버TV에 공개했다. 컴퓨터공학과와 전기정보공학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등 AI연구원 교수진 27명이 참여해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직접 인공지능(AI)을 가르치는 온라인 강의다.

강의 1부는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와 핵심 개념을 짚어준다. 장병탁 AI연구원장의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정보 엔트로피’, ‘인공지능은 어떻게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까’ 등 영상을 업로드했다. 앞으로 ‘자율주행’, ‘심리학과 인공지능’ 등의 응용 분야에 대한 강의도 이어진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비전공자도 AI를 알기 쉽게 다룬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한 만큼 전문 용어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나고, 수학적 원리도 중등 공교육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의 시간은 1시간을 넘지 않는다. 네이버 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모교에서 촬영했다.

‘모두를 위한 AI 강의’ 시리즈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업로드된다. 네



‘모두를 위한 AI 강의’ 캡처

이버TV ‘서울대학교의 모두를 위한 AI 강연’ 채널(<http://tv.naver.com/aiis>)에서 볼 수 있다.

## 모교 단신

### 양성평등 우수 국립대 선정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와 국립대법인 39곳의 양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모교가 군산대, 춘천교대와 함께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모교는 주요 보직과 학내 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결정 다양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모교에서 발표한 다양성보고서에 따르면 모교 주요 보직자 중 여성 비율은 18.8%(138명 중 26명)이었으며, 학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여성 참여율은 40% 이상인 곳이 6곳, 20~30%인 곳이 15곳, 10%대인 곳이 3곳이었다.

### 식물 스트레스 실시간 감지 센서 개발

모교 곡선영(식품동물생명공학02-06)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교수와 정대홍(화학교육 89-93) 화학교육과 교수 융합연구팀이 식물 스트레스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나노센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지난해 12월 21일 밝혔다. 나노입자의 플라즈몬 특성을 활용해 식물 스트레스 신호 물질의 농도 변화, 이동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다. 연구 결과는 작물 생산성을 높이고 방제제 남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레시피 평창’ 디저트 판매

모교 생활협동조합은 최근 모교 연구진과 평창캠퍼스 입주기업이 기획한 ‘레시피 평창’ 디저트 판매를 시작했다. 평창산 약용을 사용해 만든 ‘활짝 핀 데이치 마들렌’, ‘데이치 녹차 티라미수’, ‘데이치 티라미수’ 등을 출시했다. [www.recipe700.com](http://www.recipe700.com)

## 4년 만에 문 활짝 연 새내기 대학...“열심히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모교는 1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3회에 걸쳐 새내기대학 행사를 개최한다. 전면 대면 행사로는 4년 만에 열린 이번 새내기대학에 차수당 850~900명씩 총 2600명의 신입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1월 5일 행사에서 신입생들은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대학생활 안내와 명사 특강, 심리상담 프로그램 안내, 인권·성평등 교육을 들었다. 이후 캠퍼스 곳곳에서 재학생 멘토들과 미션투어 등을 진행한 후 서울대인 선포식을 가졌다. 특강에는 최인철 모교 심리학과 교수, 차해리 파라스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재운 집토스대표가 연사로 나섰다.



사진=모교소통팀

#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체성분 분석기, 우리가 만들었죠”

이라미 (식품영양94-99 보대원01-03)  
인바디 대표

## 입사하고 19년 만에 대표 맡아 보건대학원 자랑스러운 동문상

작년 12월 8일 열린 보건대학원동창회 송년의 밤. 권혁한(보대원75-77) 회장이 연단에 올라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 동문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했다. 저마다 일군 성취는 물론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것이나, 한눈에 봐도 젊은 동문이 있었다. 그 바로 이라미 인바디 대표다.

권 회장은 “졸업 기수상 수상 후보군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회칙을 개정하면 서까지 이 자리에 모셨다. 그만큼 눈부신 업적을 쌓았다”고 칭송했다. 2003년 인바디에 입사해 연구소장을 거쳐 부사장을 지냈고, 2018년 유럽법인으로 근무하는 4년 동안 2.5배의 매출 신장을 달성했다. 12월 28일 서울 강남에 있는 인바디빌딩에서 이라미 동문을 만났다.

“정말 뜻밖의 수상 소식이었어요. 후배들에게 이런 길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상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게 무슨 특별한 선견지명이 있어서 회사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거나, 세속적인 욕망이 없어서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지만 하면 무조건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로 인바디를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모교 재학 당시 IMF 외환위기가 닥쳐 대기업에선 신입

사원을 뽑지 않았던 반면 벤처 붐이 일어났습니다. 인바디는 일단 전공을 살려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 정도였죠. 한 2년 다니다가 유학 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해 보니까 세상에 이런 아이템이 또 있을까 싶더군요.”

인바디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체성분 분석기이자 체성분 분석의 표준으로 신뢰받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다. 미세 교류전류를 몸에 통과시켜 얻은 저항값을 측정해 인체의 구성 성분을 분석한다.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수분·단백질·무기질·지방을 비롯해 복부지방률, 세포내·외체수분비율, 기초대사량 등을 산출하며 이를 통해 체내 영양상태 등을 정확히 정할 수 있다.

인바디를 통해 산출된 데이터는 5000여 편의 학술 논문에 인용될 만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일본·유럽·중국·인도·아시아·멕시코 등 전 세계 80개국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1996년 설립 이후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2021년 기준 연매출 1378억원을 달성했다.

“건강은 기호나 취향의 문제가 아닌 까닭에 남녀노소 예외가 없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부터 건강한 사람, 나아가 매력 있는 몸매로 자신을 가꾸고 싶은 사람까지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하죠. 대형 병원 중환자실부터 우리 동네 헬스클럽까지 건강을 관리하는 곳이면 어디나 인바디가 있는 이유입니다. 일



▶ 2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가정용 인바디.

각에선 시장이 포화상태니 새로운 기기를 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곧잘 하시는데 ‘슬기로운 인바디 활용법’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기의 우수성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보여주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솔루션 상품을 기획·개발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상품이 신제품인 셈이죠.”

인바디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정확한 인바디 활용법과 검사결과 보는 법 및 일반인의 사용후기를, 인스타그램을 통

해 몸매 관리 팁과 개인 사용자의 다이어트 성공스토리 등을 제공한다. 인바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활용도는 더욱 커진다. 최근 10년 동안 받은 인바디 검사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병원·헬스장 등 내 주변에 있는 인바디 검사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다.

‘1분 셀프 테스트’를 거치면 식습관 및 운동 습관 관련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나의 식단과 운동 내용을 달력에 기록할 수도 있다. 기록이 누적되면 내게 딱 맞는 건강 관리 콘텐츠를 추천해줄 뿐 아니라 다이어트 적립금까지 준다. 그렇게 모은 적립금으로 앱을 통해서 이어트 식품까지 구입할 수 있다.

비록 지식이 있어도 혼자서는 실천하기 힘든 게 다이어트. 이를 감안해 인바디 앱은 ‘온라인 미션 PT 런바디 챌린지’를 준비했다. 매일 30분씩 온라인으로 각자의 집에서 함께 운동한다. 하루 3끼 식사를 사진 찍어 올리면 영양 코치가 식단 점검도 해준다. 인바디 장비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 PT 대신 다른 운동으로 인증해도 된다. 체중이 줄지 않아도 미션을 완수하면 누적 일수에 따라 참가비를 돌려준다. 감량 스트레스 없이 꾸준한 실천을 유도한 것. 몸짱·바디프로필 트렌드를 타고 이미 3만6000여 명이 참가했다.

“인바디는 기존 시장에 좀 더 좋은 제

품을 내놓거나 같은 제품을 좀 더 싸게 출시해 경쟁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체성분 분석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고 계속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인바디 이전엔 키와 몸무게로 건강과 질병을 관리했다면, 인바디 이후엔 체성분 및 체수분 같은 보다 정교한 데이터값을 갖고 접근할 수 있게 됐죠. 똑같이 체중이 늘거나 줄어도 그게 근육량 때문이냐 체지방 때문이냐에 따라 진단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검사의 정확성이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가지 이상의 체성분을 1장의 결과지에 일목요연하게 담아내는 인바디는 가능성과 시장성이 무궁무진한 매우 독특한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문득 보건대학원동창회 송년의 밤 때 테이블마다 배포된 인바디의 팸플릿이 떠올랐다. 재학생도 상당수 참석했으니 모교 후배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 동문은 “너무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정해진 날 월급 받아 가는 곳 정도로 생각한다면 무척 안 좋은 회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답이 없는 일을 해야 하고 따라서 회사 밖에서도 항상 일을 생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따라가야 할 회사도 없지만, 불합리한 관행이나 조직문화도 없어요. 나이·학력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보장되죠. 매일 새롭게 도전하는 삶에 가치를 둔다면 인바디만큼 좋은 회사가 없을 겁니다.” 나경태 기자

# “금융 만난 미술시장, 다가올 불경기 두렵지 않아요”

김재욱 (경영00-08)  
열매컴퍼니 대표

## 국내 최초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 미술품 담보대출 등 선보일 것

이우환, 박서보, 쿠사마 야요이... 미술시장을 주름잡는 대가들의 그림이 즐비했다. 열매컴퍼니가 운영하는 대치동 취화담갤러리에 들어섰을 때다. 그림들의 주인은 1명이 아니다. 때로는 수십명도 넘어간다. 열매컴퍼니에서 만든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엔가이드를 통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나눠 가졌기 때문이다.

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는 2018년 국내 최초로 미술품 조각투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금은 부동산, 음악 저작권, 한우까지 조각투자가 이뤄지지만 당시엔 생소한 개념이었다. 1월 3일 만난 김 동문은 “처음엔 미쳤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이전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의 80%를 점유한 선두주자가 됐다”며 웃음지었다.

“3~4년 전까지만 해도 학과 동기 30명 모임에서 김환기 화백을 얘기하면 단 한 명도 아는 친구가 없었어요. 최근엔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고요. 미술품을 투자 자산으로 보는 시각은 높아졌는데, 평범한 일반인이 옥션이나 갤러리서 그림을 사고 파는 게 쉽지 않으니 그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셈이죠.”

아트엔가이드의 미술품 공동구매 방식은 이렇다. 그림을 선구매해 공동구매에 올린다. 1억원 초과 그림은 100만원, 3000만원 이하의 그림은 1만원 등 소액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고 공동구매가 이뤄질 때 회사도 5~10% 지분으로 함께 투자한다. 그림 가치가 상승하는 타이밍을 노려 재매각을 진행하고 양도차익을 나눠 갖는다.

“수수료만 챙기고 구매자의 손해는 나몰라라 하는 플랫폼이 되기 싫었다. 회사에서 공동구매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팔아야 할 유인도 생긴다”는 설명. 지금까지 그림 165점에 대해 공동구매를 진행해 101점을 위탁 매각, 총 위탁 매각 금액이 총 213억원에 이른다. 공동구매가 15억9500만원이었던 이우환의 ‘동풍’은 22억원에, 1억1000만원에 공동구매한 단색화 거장 윤형근의 ‘무제’는 1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목표 수익률 20%를 달성하면 매각하는데 평균 가격상승률을 따지면 29% 정도다.

누가 봐도 좋은 그림을 싸게 사는 일이 쉬울까. 관건은 가치 평가다. 그는 “국내에 우리보다 작품 가격을 잘 산정하는 회사 없을 것”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작품 평가 노하우가 풍부한 유명 옥션과 아트페어 출신의 내부 심사위원단을 갖추고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작품을 볼 땐 스타일과 소재, 작가 생존 여부, 색깔과 사인 유무까지 꼼꼼히 분석한다.

작품 보는 눈이라면 대표부터 빠지지



않는다. 김 동문은 개인 소장작만 300점에 달하는 컬렉터다. 고1까지 그림도 그렸다. 부모님 뜻에 따라 경영대에 진학하고도 전시회장과 미술관을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CPA를 취득하고 회계사로 일하며 아트웍의 세계를 접한 후, 연봉을 깎고 간송미술관으로 자리를 옮겨 미술시장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알면 알수록 폐쇄적인 미술 거래의 구조를 바꾸고, 대체투자 자산으로서 미술품의 가치를 알리고픈 포부가 생겼다. 회사를 차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산 첫 그림이 김환기의 ‘산월’이었다.

“화랑에서도 반신반의했죠. 조각 투자로 그림을 팔아 올 테니 수수료만 달라는 ‘브로커’는 전에도 있었거든요. 전

무조건 모든 작품을 제 돈으로 샀어요. 작품을 사는 순간 ‘컬렉터’가 되고, 미술 시장에서 위치가 바뀌니까요.”

7분 만에 19명의 투자자가 모여 공동구매가 성사된 ‘산월’은 57일 만에 22% 높은 가격에 재매각했다. 이렇게 일이 잘 풀리면 신바람이 나지만, 공동구매가 더디게 차기라도 하면 잠 못 이루기도 했다. 실물 한 번 안 보고 수익만 바라보며 구매하는 구조가 자칫 ‘돈 될 그림’에만 관심이 쏠리게 만들진 않을까. “소위 ‘팔릴 작품’을 다루긴 하나, 선호하는 작품뿐만 아니라 선호도가 떨어지지만 가격이 현저히 낮은 작품도 찾는다. 10번 중 2~3번 정도는 중견이나 신진 작가 작품을 올리려 한다”고 그는 말했다.

사고 파는 투자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미술품에 폭 빠져 컬렉터가 된 고객도 더러 있다. “누구의 어떤 작품인지 설명도 안 읽고 구매하시던 분이 ‘저번 그림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 참어 안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선호가 생기신 거죠. 매주 미술시장의 애널리스트 리포트 같은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는데 꾸준히 읽은 분들은 어느 화랑에 가도 ‘그림 좀 안다’는 소리 들으신대요.” 그림이 좋아 시작한 일,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최근 정부가 미술품 조각투자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받게 됐다. 경기 침체로 미술시장의 위축도 예견됐지만 그는 “더 적극적으로 미술시장에 금융 기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오히려 반가워했다. 이미 탄탄한 작품 가치 평가력을 바탕으로 미술품 담보대출 서비스를 시작했고, 아트펀드, P2P방식의 미술품 거래도 도입하려 한다.

“앞으로도 계속 미술과 금융을 접목시킬 생각이예요. 미술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싶거든요. 선진국들은 미술시장의 35~40% 규모로 미술 금융 시장이 형성돼 받쳐주고 있는 반면, 국내 미술시장은 유동성 공급 방법도 한정적이고 거래 방식도 전통적이어서 시장에 충격이 오면 출렁이죠. 경기가 침체해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미술시장을 만들고 싶어요. 전국 500개 갤러리와 딜러, 옥션, 개인 컬렉터 중저희만 할 수 있는 일이라 자부합니다.” 박수진 기자



새로운 도약 당신과 함께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만만한 기부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만만한 기부 수혜 학생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선한 인재 장학금을 바탕으로 꿈을 펼치고 학업을 이어가라는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달은 후 장학금에 달린 책임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인 만큼 저 역시 책임을 갖고 장학금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누군가의 응원을 받는다는 것

입학했을 때부터 선한 인재 장학금을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런 경제적 지원도 없는 상황 속에서 만약 이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대 선한 인재 장학생  
감사편지에서 발췌



“나의 만만한 기부,  
어떻게 쓰일까요?”



STEP 1

#### 후원 참여

모든 후원자는 SNU Family로서 기부영수증, 감사카드 그리고 소정의 기념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2

#### 선한 인재 장학금 조성

매년 약 30억 원의 기금 조성이 필요하며 소중한 기부금에 학교 예산이 더해집니다

STEP 3

#### 장학복지과 전달

후원금 전액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생활비 장학금인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조성되며 장학복지과로 전달됩니다

STEP 4

#### 매월 선한 인재 장학금 지급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 800명에게 매월 선한 인재 장학금 30만 원을, 연간 360만 원 지급합니다

STEP 5

#### 열공!

선한 인재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적 고충을 덜어내고 학업에 충실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FINISH!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STEP 6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 후 휴대폰으로 찍어  
1666-2930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만만한 기부 간단 참여신청서

[MMH23-01]

성명:	연락처:
학과(특별과정):	입학연도(기수):
약정금액: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매월 원
<input type="checkbox"/> 일시후원	일금 원



서울대학교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의 대표모금기관입니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 (940동) 2층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문의 : 발전기금(접수) Tel. 02-871-8004 Fax. 02-872-4149 E-mail. snuf@snu.ac.kr

나의 취미

# 소똥, 진흙, 쌀가루로 벽에 그린 그림...영월에 가면 인도가 있다

인도미술 수집가 박여송(응용미술72-76)  
인도미술박물관장

## 42년간 현지서 1500점 모아 남편백좌흙 동문은 인도지역연구

충북 제천역에서 영월 주천면 쪽으로 차를 타고 20여분 가면 인도미술박물관이 나온다. 인도의 성을 닮은 형태에 '핑크 시티'로 불리는 인도 자이푸르가 떠오르는 핑크빛이 눈에 띈다. 박여송 관장이 2012년 남편 백좌흙(법학72-76) 전 경상대 법대 교수와 함께 세웠다.

민화와 조각, 공예품, 텍스타일(섬유) 작품까지 300여점의 박물관 전시품을 오로지 개인 힘으로 모았더니 믿기지 않는다. 그나마도 1981년부터 수집한 컬렉션 1500여 점의 일부라면 입이 딱 벌어진다. 수집가의 꿈은 박물관에 종착하게 마련. 전국 유일의 박물관 특구로 지정된 영월군의 제안으로 폐교한 초등학교 자리에 박물관을 세운 것에 대해 "운이 좋았다"며 박 동문은 빙긋 웃었다. 12월 28일 박물관에서 그가 건넨 따뜻한 차 티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다.

1981년 백좌흙 동문이 국제로타리재단 장학금을 받아 델리대 법학박사과정 에 진학하면서 박 동문도 5년간 일하던 우표디자인직을 그만두고 인도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신혼여행 삼아 인도 전역을 여행하던 박 동문 부부는 인도 미술에 매료됐다. 그곳은 다양한 인종

과 종교를 바탕으로 수많은 신화와 의식이 깃든 독특한 전통들이 난장(亂場)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정형화된 미술교육을 받은 박 동문에게 인도의 민속 미술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여인들이 새벽에 일어나 가정의 축복을 기원하면서 쌀가루로 만다라를 그려요. 정성을 다해서 그리는 기도 같은 그림인데 이게 '진짜' 그림이다 싶었죠. 자연적인 재료를 많이 사용해요. 14억 인구 중 1억명 정도가 부족민으로 분류되는데 부족마다의 독특한 미술을 볼 수 있어요. 왈리 부족은 흙벽을 캔버스 삼아 소똥을 바르고 쌀가루로 그림을 그리는데 숲 속의 자신들의 생활을 솔직하게 표현한 모습은 아이들 그림을 대하는 듯했어요. 피카소 그림을 봤을 때보다 더 강렬한 감동을 느꼈죠."

운도 따랐다. 수집을 시작할 무렵 기나긴 식민지 시대를 벗어난 인도는 단절된 문화를 복구하고 보전하려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양질의 작품이 미술시장에 쏟아져 나왔고, 부부는 그 가치를 일찍 알아봤다. "인도 사람들이 예전부터 벽화를 많이 그렸어요. 주로 자기 집 벽에 그리던 걸 당시 장인들을 시켜 종이나 천에 재현하고 있었죠. 그때가 아니었으면 구하지 못했을 작품들이에요."

"여행에 지참한 비상금은 작품과 맞바꾸고, 인도로 올 때 혼수로 어머니가 한복에 달아준 금단추까지 팔았다"며 웃음지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수집품을 실어 나르고 한국에 온 후에도 인도 미술과 박물관 연구를 계속했다. 박 동문은 뉴델리에서 한·인 수교 30주년 기념 특별전 등 네 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백 동문은 한국인도학회에서 활동했다. 박 관장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첫 번째 전시실엔 안드라프라데쉬의 칼람 카리그림, 서벵갈의 두루마리그림, 라자스탄의 파드그림, 세밀화, 부족민 그림이 벽마다 가득했다. 이어 인도의 대표적 민화라 할 수 있는 마두바니 그림과 왈리 부족 그림, 조각까지. 친절한 설명 속에 수많은 신들과 부족, 주민의 이야기가 스쳐갔다. 왈리 부족 그림 앞에 선 의외의 정교성과 친진난민함에 감탄과 웃음이 함께 나왔다. "모든 것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인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인도 중부 지방의 빔베트카 벽화군은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 버금갈 정도로 유명한데 '오늘 뭘 했다, 무슨 축제가 있었다' 같은 걸 그림일기처럼 그려 뒀죠. 그림 그리



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예술 행위로 현대 미술 작가들

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의 삶과 상관 없는 그림을 그리는 건 '진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인도에서 전통 염색기법을 배운 박 동문은 섬유 작품에도 적지 않은 공간을 할애했다.

전시실에 고대 인도에서 신성시한 숫자인 7개의 형상이 부조된 사암 조각이 있었다. 인도의 한 사막을 여행하다 발견한 조상신 비석이다. 너무 멋져 보여 가이드에게 지나가는 말로 '이런 것 좀 구할 수 없을까' 했는데 마을 촌장이 선뜻 팔았다. 현지인도 자국 미술의 가치를 잘 모르던 때다. "지금은 좋은 작품 구하기 힘들다. 부족마다 개성 강하던 미술도 휴대폰이 보급되며 경계가 없어지고 상업주의도 짙어졌다"고 했다.

하루는 인도에서 박물관장을 지낸 이가 방문해 "평범한 한국의 부부가 이 정도 컬렉션을 꾸리다니, 인도 박물관보다 더 좋다"고 감탄했다. "사실 인도인들이 덕담을 잘해요(웃음). 항상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 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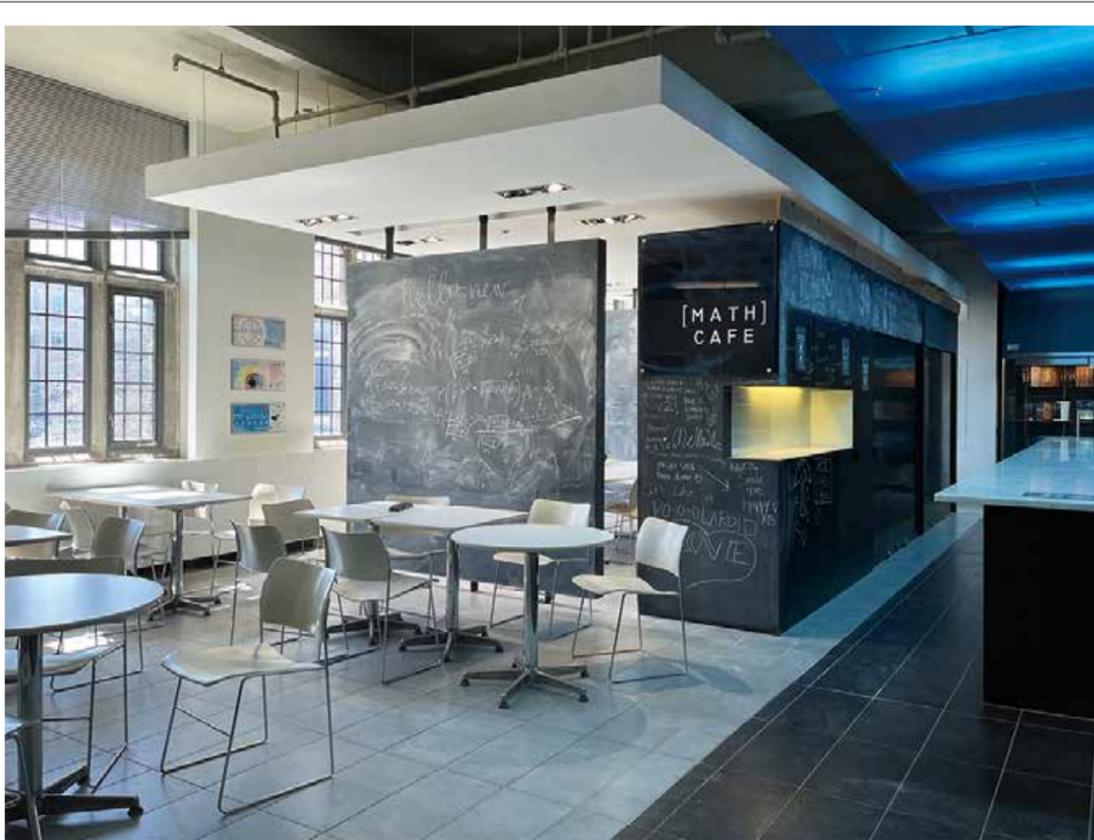
젊을 땐 외왕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닮아 가더라고요. 우리보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훨씬 긍정적이고 밝은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칭찬에 인색한 우리도 보고 배웠으면 하는 점이지요."

그는 인도를 보는 우리 시선이 '게으르고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 더 입체적이고 다채로워지면 좋겠다고 했다. 박물관은 인도 사회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인도 미술체험과 음식, 의상, 요가, 명상 등 다양한 인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해 가을엔 백좌흙 동문이 발족한 '영월인도포럼'이 박물관에서 열린다. 인도 연구자와 대사, 주재원 출신 등 전국 인도 전문가들이 영월에 모여 인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토론도 펼친다.

새해 목표를 묻자 "건강"이라고 답했다.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일이 녹록지 않지만 오래오래 관람 안내도 하고, 인도 문화를 전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 3년간 못 갔던 인도 방문 계획도 세우고 있다.

"노 프라블럼(No Problem)". 인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말이에요. 차를 끊어도 '노 프라블럼'이라며 그냥 가래요. 처음엔 '또 저소리네'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 정말 좋은 말이에요.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작은 일에 화내고, 돈 때문에 싸우는 게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 사람이 알고 있다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박물관은 하절기에는 월요일, 동절기엔 월, 화 휴관한다.

박수진기자  
문의: 033-375-2883



사진한컷

## 철관으로 도배된 캐나다 맥마스터대 수학과

문승주(지구환경과학16-21)  
캐나다 필즈수학연구소 박사후과정

곧 있으면 캐나다를 떠나 미국의 한 작은 대학에 조교수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허준

이 동문의 필즈상 수상 소식을 듣게 되어 자랑스러웠고, 그래서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포닥 기간 중 찍은 사진들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보내드린 사진은 캐나다 맥마스터대학교 수학과 건물 내부입니다.

수학과답게 온통 철관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심지어 계단실 벽도 철관

입니다. 맥마스터대학교 수학과는 특히 'Calculus' 저자로 유명한 제임스 스튜어트(James Stewart)가 재직했던 곳이라 그를 기리는 책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된 책들이 한구석에 있는데 그중 한국어로 '미분적분학'이라고 쓰여 있는 책들이 눈에 띕니다.

화제의 동문 **유튜버** 'All About JAMIE' 이유진 (기약19입) 오보이스트

## 발랄한 오보에 영상...음악 전공 희망자들에 인기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졸업 연주를 펼친 모교 음대 재학생 이유진씨의 유튜브 채널. 특별한 것 없는 일상 브이로 그와 전공인 오보에 연주 영상만으로 4만6000여 명의 구독자를 모았다. 인스타그램이 연결고리가 돼 2022년 봄 가수테이가 발표한 노래 '7년을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구나'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적 있다. 예중, 예고를 나와 모교 음대에 입학한 그는 음악 외 다른 분야에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못하다가 대학 입시를 끝낸 후 만끽한 흥겨운 분위기를 따라 취미 삼아 본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 재미로 사진과 영상을 찍고 편집까지 익히고 나니 '나의 일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유튜버 활동으로 이어진 것.

재생목록은 어린 시절 추억을 담은 영상과 연주 및 노래 영상, 일상 브이로 그와 메이크업 영상 등으로 짜여있다. 지난해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 앤 스쿨(Aspen Music Festival and School 이하 AMFS)'에 참가했을 때의 연주회와 미국 방문기를 별도의 재생목록으로 담기도 했다. 1949년 시작된 AMFS는 미국 최고의 클래식 음악 축제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오케스트라 콘서트, 독주 및 실내악 공연, 마스터 클래스, 어린이 프로그램을 포함해 400개 이상의 클



래시 음악 행사가 펼쳐지며 매년 10만여 명의 청중이 운집한다. 이유진씨는 이 행사에 한국 연주자 대표이자 관악기 대표로 참가했다.

그의 채널 시청자 중엔 음악 전공을 희망하는 입시생이 많다. 선배로서 입시 및 음악을 대하는 자세에 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무대 위에서 떨지 않는 비법을 묻는 질문에 "엄청 땀다. 티를 내지 않을 뿐"이라고 답했다. "연주자에게 시각적인 측면도 중요하다"면서 "무대에 들어서 연주하고, 연주를 마친 후 밖으로 나가기가까지, 머릿속에 그린 자신의 이미지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슬럼프가 왔을 땐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 많이 들어보라고 말했다. 그 음악이 내게 위로가 되듯 내 음악이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난다고.

이유진씨의 유튜브 채널은 발랄한 영상미와 함께 신진 음악가다운 내면의 깊이를 동시에 느끼게 한다. **나경태기자**

화제의 책

“개성공단은 북에 계류 같은 존재”

“누가 보급을 줘니까. 연장근무 안 해 가지고 납품기한을 못 맞추면 공장이 무너질 텐데 그러면 누가 밥 먹여 줄 것인가”라고 항변하였다고 했다. ...북측 근로자들도 입주기업의 경영 상태를 알고 제품납품이 제대로 안 되고 품질 보장이 안 되면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산교육으로 터득한 것이다.”

“북한에서 개성공단은 계류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이유 삼아 개혁개방의 방향을 뒤로 돌릴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해도 앞날이 걱정되었을 것이다.”



개성 1,200일 빛과 그림자

김동근(농학65-73)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초대 위원장  
렛츠북

산립청장, 농림부 차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을 거쳐 2004년 6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3년 6개월간을 근무했던 김동근 동문은 최근 ‘개성 1,200일 빛과 그림자’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개성공단의 초기 모습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개

성공단을 발전시켜 가던 과정을 설명하고, 당시 북한 근로자의 생활상과 그들의 임금 체계, 에피소드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책을 썼다고 했다.

개성공단은 초기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했으나, 2006년 이후 북한의 잇단 핵 실험으로 가동이 중단된 데 이어 2020년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 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완전 폐쇄되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및 무인기 도발 등으로 남북한은 긴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 개성공단은 역사의 뒤안길에 머물고 있으나 언젠가는 남북경제협력의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될 날이 올 것이다.

북한 당국은 북측 근로자들이 자본주의 사고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 출근하면 각 파트별로 흩어지기 전에 6~10명씩 그룹을 지어 노동신문에 게재된 중요 내용을 10분 내외로 읽고 서로 토의하는 ‘독보(讀報)’라는 모임을 가진다. 북측 근로자 중에는 “힘들고 바쁘게 시간만 낭비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공단 내 한전의 통신선 절단 도난, 화물차의 배터리 도난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했다. 특히 배터리는 장마당에서 비싸게 거래되는데, 그 이유는 전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북한은 잦은 정전이다. 계절별, 지역별 선별 송전을 하고 있어 가정에서는 전기를 충전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쓰는 배터리가 요긴하기 때문이다.”

S봉제 업체 북측 근로자 임금은 월 25일 근무 기준으로 기본 노임 50달러에 연장 근무 수당을 합치면 80달러 수준이다. 북한 당국은 사회보장지출금(보험) 30%를 공제한 후에 북한 원화로 1인당 2500원(약 18달러)을 지불하고 개인별 잔액은 물자공급소에 통보해 놓은 대로 해당 금액만큼 판매 전표(물자구입권)를 발급해준다. 북한의 국정환율은 1\$=140원이나 장마당 시장환율은 1\$=2500원이라고 했다. 이경형 편집인

EXHIBITIONS

‘이만익: 별을 그리는 마음’

2월 5일까지 송파구 소마미술관



한국적 서양화의 대가로 불렸던 고이만익(회화57-61) 작가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예술세계를 재조명한다.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유학한 이 동문은 가족애와 고향, 설화, 종교 등 한국인의 감수성을 화폭에 담았다. 뮤지컬 ‘명성황후’ 포스터 제작, 88올림픽 미술감독으로도 알려졌다.

문의: 02-425-1077

임옥상 개인전 ‘여기, 일어서는 땅’

3월 12일까지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캔버스 위에 흙을 바르는 ‘흙 산수화’의 대가 임옥상(회화68-72) 작가가 흙과 땅을 소재로 설치작업을 선보인다. 가을걷이가 끝난 논을 그대로 떠서 12m 높이의 흙벽 형태로 만든 ‘여기, 일어서는 땅’ 등 대형 설치작 6점을 비롯해 4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2-3701-9500

BOOKS

부드러움의 미덕

김학주(중문52-56) 모교 명예교수 외 푸른사상



안동 출신 모교 교수들이 주축으로 이뤄진 모임 ‘숙맥’의 15번째 동인지. 수필을 중심으로 예술평론, 논평, 서평, 여행

기 등이 책에 실린 자유롭고 폭넓은 주제의 글들에는 원로 교수들이 그간 쌓아온 학문적 지식과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인생길을 앞서 걸으면서 터득한 필자들의 삶에 대한 통찰과 깊은 사유를 통해 부드러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소망이 새겨진 글들이다. 김학주·김경동·곽광수·김명렬·안삼환·이상욱·이익섭·장경렬·정재서·정진홍 모교 명예교수와 이화여대 김재은 명예교수, 정재서 명예교수, 성균관대 이상일 명예교수 등이 참여했다.

히든 히어로즈

임형규(전자72-76) 전 삼성전자 사장 디케



임형규 동문이 반도체 사업 도전과 기술추격, 메모리 세계 제패과정의 치열했던 현장 이야기와 미래 첨단 반도체 경쟁

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과 과제를 이야기한다. 임 동문은 1976년에 입사해 28년간 삼성의 반도체 사업 대부분에 참여한 삼성전자 반도체 굴기의 산증인. 그는 향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기술인재의 충분한 공급을 꼽는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와 관련한 1000여 가지 기술 줄기에서 우위를 형성하고 있고, 하나의 기술 줄기마다 최소 10명 이상의 경쟁력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한 만큼, 체계적 반도체 인재공급 체계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과 죽음 그리고 천국

이병훈(의학60-66) 대한의사협회 고문 명성서림



소아과 전문의이자 발명가, 그리고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병훈 동문의 두 번째 자전적 수필집. 지난

55년 동안 의사로서 우리 사회에 많은 봉사활동을 해온 저자는 진료실 현장에서의 경험과 발명, 그리고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상을 생동감 있는 문체로 풀어냈다.

이 동문은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좋은 일이다. 우리가 웃어야 인생도 웃고, 세상도 웃는다. 즐거운 인생은 언제나 청춘이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의 가치를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조명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 미래전략

안종배(독어교육81-85) 국제미래학회장과 외/박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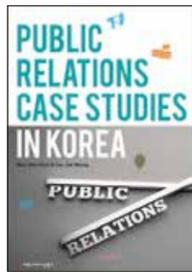


구글, MS, 애플 등 전 세계 IT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 미래 선

도기업이 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이해하고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각 영역에서 적용되어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을 입안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이런 관점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쉽게 이해하고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어떻게 우리의 산업과 비즈니스와 생활에 적용되고 활용되는지 국제미래학회 30명의 석학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저술했다.

Public Relations Case Studies in Korea

원우현(행정61-65) 고려대 명예교수 커뮤니케이션북스



이재용 삼성 전자 회장의 사과문, 한국 언론의 코로나 보도 등 한국의 PR 사례를 영문으로 소개한 책. 한국 커뮤니케이

션학의 석학인 원우현 동문이 사례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적용 방법을 풀어낸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높아졌고 한국의 PR 학계와 업계 또한 단기간 내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외국어로 된 한국 PR 서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원 동문은 “한국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문화와 한국인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집필 동기를 밝혔다.

교사라서 행복하세요?

김남희(수학교육86-90) 전주대 수학교육과 교수/박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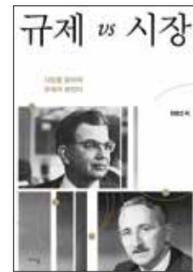


25년간 교육현장을 온몸으로 체험한 김남희 동문의 경험을 담은 책으로 중·고등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로 학생 지도하

면서 얻은 풍부한 교육 사례를 담았다. 저자 자신이 교육자로서 성장한 이야기를 통해 현장 교육에 성공하는 비법을 알린다. 교사교육자로서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현장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김 동문은 “현장 교사로 진출하는 제자들에게 뭐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에 책을 쓰게 됐다”며 “교대, 사대에 다니는 예비교사들, 나아가 현장 교사들,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께 교육의 가치와 의미, 교육자의 행복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규제 VS 시장

최병선(경영71-75) 모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가날



최병선 동문은 이 책을 통해 오늘날 시장은 악의적 프레임에 갇혔고, 정부는 허구적 신화에 싸여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

의존이라는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 하이테크의 말대로 인류는 ‘노예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비판한다. 낡고 닳은 건 시장이 아닌 시장 원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라는 것. 더 나아가 규제는 곧 세금이라고 말한다.

최 동문은 “시장 실패론은 오류에 가득 차 있다”며 “시장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진화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이 책의 제1장 레너드 리드의 ‘나, 연필을 통해 본 시장’만 읽어도 큰 깨달음이 온다.

카프리치오

소병규(약학05-10 필명 전기현) 동정약국 대표/좋은땅



소병규 동문의 두 번째 단편집. 작가의 다양한 경험과 상상력이 한층 더해져 만들어진 이번 작품에는 ‘변덕’을 주제로 7

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존 포드의 서부극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차갑고 무뎠던 보이지만 그 안에 고독한 내면을 지닌 그림자 ‘토맥’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권선징악과 삶의 본질적인 허무함을 다룬 단편을 독자들도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는 부족의 전통과 압박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가장 ‘켈링’과 그의 무거운 책임감을 만나게 된다. 마지막 단편 ‘유정천리’에서는 단편집 전체에 흐르는 종교적 테마의 무거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작가의 가벼운 위트가 엿보인다.

CONCERTS

피리산조 세 바탕전 ‘산조다짐’

2월 24일 종로구 서울문화문국악당

피리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박치완(국악92-96·사진) 동문의 공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석사과정, 한양대



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박 동문은 다수의 피리 창작음악을 발표해 왔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에 재직 중이다.

문의: 02-3210-7001

가족오페라 모차르트 마술피리

2월 18-19일 성남 수정구 성남아트리움극장



모차르트의 걸작 ‘마술피리’를 들을 수 있는 오페라 콘서트. 오페라 전문 가수들의 열정적인 무대에 오페라 전문 스토리텔

러의 해설이 함께한다. 파미나 역에 소프라노 허희경(성악05-09)·이세진(성악92-96) 동문, 제사장 역에 베이스 박기욱(성악05-09) 동문이 출연한다.

문의: 02-2232-1148

# 동정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인사, 수상, 행사, 결혼 등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5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신문에 게재됩니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이메일 news@snu.ac.kr 전화 02-886-2219 팩스 02-886-2218

## 인사



**박양호**(지리71-75 전 국토연구원장) 12월 28일 대구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에 내정.



**이명우**(미학73-77 동원산업 부회장) 12월 19일 미 펜실베이니아대 한국총동창회장에 선임.



**이진형**(기계설계74-78 GPC 대표) 최근 서울사대부고동창회 29대 회장에 취임.



**신학철**(기계공학 75-79 LG화학 부회장) 12월 22일 한국 석유화학협회 회장에 선임.



**제성호**(법학77-81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월 19일 서울대기독교총동문화회장에 선출.



**이석준**(경제78-82 전 국무조정실장) 1월 2일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취임. 또 지난 12월 22일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이사에 선임.



**장인경**(조소78-82 철박물관 관장) 12월 29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에 임명.



**이용식**(토목공학 79-83 문화일보 주필) 12월 28일 관훈클럽정신영양금 제 16대 이사장에 선출.



**방승찬**(전자공학 80-84 ETRI 책임연구원) 12월 1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에 선임.



**주한규**(원자핵공학 80-84 모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12월 13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에 선임.



**지영미**(의학80-86 한국파스퇴르 연구소장) 12월 19일 질병관리청장에 취임.



**한상만**(경제80-84 성균관대 경영대학교수) 1월 2일 성균관대 대학원장 겸 일 반대학원장에 선임.



**김성태**(AFP 21기 IBK기업은행 전무) 1월 3일 IBK기업은행장에 취임.



**박만규**(대학원83-85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최근 제 58대 한국불어불문학회 회장에 취임.



**박상인**(경제84-88 모교 행정대학원 교수) 12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 34대 상임집행위원장에 선출.



**조성두**(항공공학88 졸 서민금융진흥원 상임감사) 1월 7일 흥사단 신임 이사장에 취임.



**백남중**(의학84-90 분당서울대병원장)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신경재활학회에서 차기 회장에 추대.



**서상기**(지질과학 84-91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장) 12월 22일 한국농어촌연구원장에 선임.



**임영호**(AIP 65기 하나은행 부행장) 1월 2일 하나생명 사장에 취임.



**박태균**(국사85-89 모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12월 19일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에 선출.



**전우중**(AMP 80기 SK증권 경영지원부 문장) 12월 22일 SK증권 대표이사에 선임.



**이상훈**(ACAD 90기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12월 17일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제 20대 회장으로 선출.



**윤영석**(심리86-91 제일기획 상무) 12월 12일 제일기획 부사장으로 승진.



**김세용**(한대원89-91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12월 22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취임.



**민주원**(행대원98-01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장) 12월 29일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임명.



**조현준**(경제85-90 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부 셀장) 12월 22일 핀크 사장에 내정.



**장원재**(수학86-90 메리츠증권 S&T 총괄부문장) 12월 23일 메리츠증권 사장으로 승진.



**이후승**(AFP 18기 하나은행 부사장) 12월 22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사장에 내정.



**최태호**(외교88-93 주아프가니스탄 대사) 12월 22일 외교부 유럽국장에 임명.



**문남수**(전기공학91-96 에스원 상무) 12월 12일 에스원 부사장으로 승진.



**강보경**(수학교육 94-99 삼성전자 DS 부문 연구원) 12월 6일 삼성전자 상무로 승진.



**당효성**(경영95-00 MBK파트너스 법무총괄 전무) 1월 2일 사모투자 운용사인 MBK파트너스 파트너 겸 부사장으로 승진.



**이정원**(전기공학 96-99 삼성전자 DS 부문 Modern개발팀장) 12월 6일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승진.



**노준홍**(재료공학 99-03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12월 12일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Y-KAST)' 회원으로 선출.



**장영진**(식품동물생명공학부03-07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교수) 12월 12일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Y-KAST)' 회원으로 선출.

## 수상



**장세창**(전기65-69 파워맥스 회장) 12월 1일 전력산업발전공로로 금탑산업훈장 받음.



**김민영**(보대원72-74 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12월 22일 대한보건협회 제 36회 보건대상(학술부문) 수상.



**권혁한**(보대원75-77 제이씨아이바이오 회장) 12월 22일 시사뉴스저널 등이 수여하는 '2022년을 빛낸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신각수**(법학73-77 전 주일대사) 1월 9일 서울고총동창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서울인상' 수상.



**이의현**(AIP 20기 대일특수강 대표) 12월 5일 산업통상부 산하 국가품질명장협회로부터 '국가품질 명예명장'으로 선정.



**김은세**(ACAD 50기 인산가 대표이사 회장) 12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수상.

## 소기업인상 수상



**김종식**(ACAD 60기 전 한국고총 사무총장) 12월 27일 한국노인복지봉사회가 주최한 '2022 대한민국 문화예술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강은모**(외교78-82 유성CC 대표) 12월 10일 미국 벨헤이븐대 명예경영학 박사학위 받음.



**주호영**(ALP 2기 국민의회 원내대표) 12월 21일 제24회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



**황동희**(신문90-95 영화감독) 최근 미국 대중문화지 버라이어티가 선정한 '버라이어티 500'에 선정.



**강지훈**(의학04-08 모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12월 23일 '제2회 임성기연구자상' 젊은연구자상 수상자에 선정.



**임성현**(기악11-15 피아니스트) 최근 제 5회 이스탄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 및 특별상 수상.

## 행사 외



**윤세영**(행정56-61 태영그룹 창업회장) 1월 1일 태영 창업 50주년 맞아 '정도', '내실' 주제의 신년사 발표.



**이용경**(전자공학 60-64 CGNTV대표) 최근 파리에 글로벌 선교방송 CGNTV의 6번째 해외지사 설립.



**정몽준**(경제70-75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12월 29일 한미동맹재단에 1억 원 기부.



**황영기**(무역71-75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최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1억 원 기부하며 재단 400번째 회원으로 입회.



**백병두**(경영77-81 전 DS인테리어 전무) 최근 환경기사분야 자격증인 수질환경기사 국가기술자격증 역대 최고령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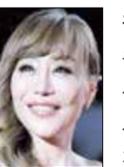


**김의영**(정치80-84 모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근 2025년 서울시 개최되는 '세계정치학회 세계대회' 수석 조직위원장에 선임.

## 한국공학한림원 김기남 회장 등 회장단 6명



12월 20일 한국공학한림원 총회에서 김기남(전자77-81)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부회장단으로 송정희(전자77-81) 일마그나 기술고문, 윤의준(금속79-83) 한국에너지공단 총장, 황성우(전자81-85) 삼성SDS 사장, 구현모(산업81-85) KT 사장, 이상업(화학82-86) 카이스트 부총장이 선출됐다.



**조수미**(성악81입 소프라노) 12월 27일 서울 마곡 LG센터에서 후배 성악가 및 관객을 대상으로 국내 첫 '마스터클래스' 진행.



**김시찬**(SGS 16기 서정대 기획처장) 12월 21-26일 인사아트센터에서 '화양연화'를 주제로 조각 초대전 개최.



**김신록**(지리99-04 배우) 최근 종영된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재벌 총수 딸 진화영 역으로 출연.



**허효정**(기악99-03 피아니스트 겸 음악학자) 12월 22일 예술의전당에서 '피아니스트 허효정의 인문학 리사이틀 IV' 개최.

## 삼가 명복을 빕니다

변형운(상학45-48 모교 명예교수) 12월 24일 별세(95세) 육광수(기계공학46-50 인하대 명예교수) 23년 1월 2일 별세(97세) 한상윤(화학공학51-56 전 동진컨설팅 대표) 12월 12일 별세(90세) 임홍빈(법학52-56 문학사상사 회장) 23년 1월 2일 별세(93세) 최만해(상학52-56 전 중앙관광개발 대표) 23년 1월 3일 별세(92세) 김운영(조선항공56졸) 12월 11일 별세(91세) 백기환(경제53-57) 12월 11일 별세(88세) 이상은(약학58졸 전 동명스틸 회장) 12월 11일 별세(87세) 이영호(철학55-62 한양대 명예교수) 12월 20일 별세(86세) 하영준(정치55-60 전 효성금속 회장) 12월 1일 별세(87세) 박준석(경대원66-69 전 신한은행 지점장) 12월 7일 별세(86세) 천병희(독문56-60 단국대 명예교수) 12월 22일 별세(83세) 김석홍(물리57-63 미국 시카고 거주) 12월 15일 별세(83세) 차봉희(독문59-63 한신대 명예교수) 12월 28일 별세(81세) 김정원(섬유공학63-70 전 한국소모방협회 전무) 23년 1월 3일 별세(78세) 유성렬(국어교육64-71 전 농장 경영) 12월 26일 별세(80세) 권유성(전기공학69-73 전 대우엔지니어링 상무) 12월 27일 별세(73세) 장중수(축산82-86 한국방송통신대 농학과 교수) 12월 12일 별세(59세) 김명년(수학88-92 소프트웨어 개발자) 12월 26일 별세(53세)

## 알림

### 제25회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 추천 공고

총동창회는 매년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명예를 드높인 동문 또는 단체에, '관악대상'을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제25회 관악대상 후보자(단체)를 다음과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후보 추천 대상
  -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유·무형적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분 또는 단체
  - 인류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총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분 또는 단체
- 2. 후보 추천
  - 추천방법: 서울대인 누구나 추천 가능하며, 추천 서식에 맞추어, 후보의 공적 및 주요활동 사항을 작성하여 총동창회 사무처로 제출
  - ※ 추천 서식은 홈페이지 [www.snu.ac.kr](http://www.snu.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3. 수상자 선정 및 시상
  - 수상자는 2023년 2월 중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2023년 3월 24일(금) 정기총회에서 시상합니다.
- 4. 문의 및 접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관악대상 담당자(02-879-8208)(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940동 415호, (신림동, 서울대연구공원 본관)
  - 대표전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ac.kr](mailto:member@snu.ac.kr)
  - ※ 추천서식 및 역대 수상자 명단은 홈페이지 [www.snu.ac.kr](http://www.snu.ac.kr) 공지사항 참고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 보내주신 사랑, 역사가 됩니다

보내주신 귀한 회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44만 서울대인의 새 역사 창조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고문·자문위원·회장단·특별과장 동창회장·논설위원·평생회비·연회비·지부분담금 등 : 2022. 11. 24~2022. 12. 23  
 성명 오른쪽 숫자 : 입학 연도(미확인시 졸업 연도) / 특별과장은 기수 표시

### 회비 납부 방법

구분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일반회원	10,000원	50,000원	500,000원 (65세 이상은 300,000원)
이사회원		150,000원	1,000,000원 (65세 이상은 7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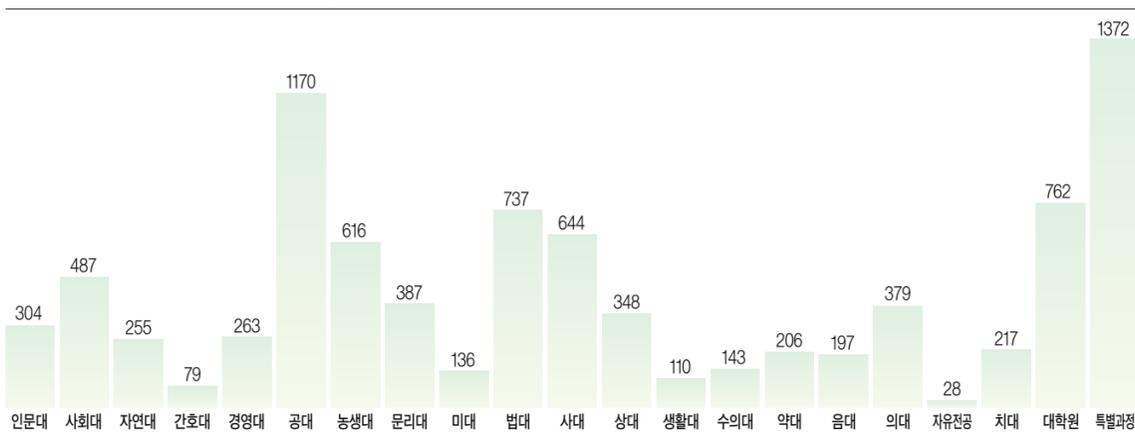
### 회비 납부하시면

- 매월 총동창신문 제공
- 제휴 병원 건강검진 우대
- 익년도 탁상달력 제공
- 제휴호텔·리조트·펜션 등 할인
- 경조 서비스 (실비 부담)

- 입회비는 입회 시 한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지로 : 지로용지를 가까운 금융기관의 공과금 자동화기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 www.snua.or.kr 첫 화면 오른쪽 중간 '동문회비·후원금'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도 사용 가능)
  - 은행계좌 : 다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성함, 학과, 입학 연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농협 079-01-442414 신한 140-001-180304 우리 1005-401-137376 국민 827-01-0248-009**

### 2022년 단대별 누적 회비납부현황

총 8840명 \*12월 23일 현재



△조인애	간호대 67	△조현호	공대 10	◆ACAD	△김영길 49	△장준경	23	△윤영식	54	△이규호	68	△이병근	59
△차윤경	가정대 76	△천종식	자연대 86	◆ABP	△김수동 32			△정철현	55	△최인승	58		
△최경인	약대 07	△최동렬	법대 82	◆SGS	△최상식 2			◆미대	△박선호 18	△양정연	19		
△최시라	행대원 03	△최상홍	공대 54	◆APC	△김두완 5			△임채욱	95	△전우정	00		
△최성규	법대 00	△최성필	공대 08	◆HPM	△김현호 32	△정희순	14	◆법대	△김대영 71	△김수업	92		
△최승환	경영대 82	△최원미	KFL 16	◆AMPP	△염재구 6	△이인근	2	△김영우	15	△성은지	99	△신용섭	07
△최재균	의대 20	△최정환	경영대 88	◆최종인	2			△이광석	93	△이호진	07	△정기욱	60
△최지은	사회대 10	△추승식	사회대 15	◆AMPFRI	△유영기 23	△윤홍근	29	△정세욱	56	△정재현	87	△황용식	63
△한상진	한대원 96	△현 준	자연대 03	◆FIP	△박우생 18	△이부일	2	◆사대	△곽창신 72	△김명혜	55		
△홍남중	공대 88	△홍수정	공대 02	◆GLP	△허수진 14			△김종근	55	△김효임	04	△문하은	16
△홍은숙	사대 76	△홍재경	공대 65	◆ALP	△한은혜 31			△박영남	71	△박용범	88	△박윤건	59
△황보영	간호대 92			◆BCP	△신철수 9			△박윤희	06	△박 일	90	△변희준	58
				◆ABKI	△김철수 5			△양덕배	61	△양문봉	77	△염소영	95
								△이경은	08	△이대규	57	△이서복	79
								△이성규	57	△이수창	03	△이현지	11
								△임디울	16	△최지영	14		
								◆상대	△강용식 58	△김성기	61		
								△박성균	67	△백운생	62	△양해성	68
								△이두호	63	△이원우	64	△이찬일	67
								△정철우	57	△허도행	64		
								◆생활대	△송경희 74	△이장현	08		
								△이지수	00	△이지현	04	△이지혜	06
								◆수의대	△박노극 64	△임동주	74		
								△황병주	57				
								◆약대	△문태상 88	△손여원	78		
								△윤형중	57	△진화영	56	△최경희	54
								◆음대	△김정아 98	△김효경	54		
								△노경아	84	△문현선	92	△박인수	70
								△오 희	86	△장지훈	88	△장희선	87
								△정혜연	02	△차민정	99		
								◆의대	△박남진 71	△박신근	61		
								△반준섭	90	△윤상운	16	△윤춘식	93
								△임소향	94	△임유주	04	△정진욱	15
								◆자유전공	△이예은 11	△이지은	09		
								◆치대	△강신우 76	△권일근	56		
								△김종배	58	△박홍규	71	△진성박	75
								◆대학원	△손상익 85	△장인청	81		
								△최천석	77	△허찬수	72		
								△반준섭	90	△윤상운	16	△윤춘식	93
								◆국대원	△김소연 16				
								△김대원	△김소연 16				
								◆치대원	△김소연 16				
								◆행대원	△권도윤 18	△정우택	77		
								△최찬섭	11				
								◆AMP	△이상규 76	△장동철	77		
								◆ACAD	△서영길 36	△오복용	51		
								△윤의중	77	△이도희	76	△지태욱	20
								◆APC	△이동백 15	△정현중	9		
								◆ACPMP	△김임배 2				
								◆ALP	△정기환 6				
								◆AFP	△이호준 28	△임의준	28		
								◆ABKI	△왕혜진 8				
								◆KFL	△김선아 25	△박미희	25		

\* 관악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출연해주시기부금에 대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문		
△정해창	법대	56
상임부회장		
△김형진	AIP	21
부회장		
△신현우	공대	83
논설위원		
△오형규	인문대	82

평생회비 - 이사					
△고광기	농대	67	△고상열	경영대	80
△고영진	농대	76	△김동환	AMP	93
△김세한	ABP	40	△김원진	음대	97
△류국영	가정대	84	△박경숙	AIC	8
△손효동	SPARC	38	△송승재	AIP	46
△송호경	농대	68	△이범걸	대학원	77
△이승규	ACPMP	9	△이영재	공대	78
△이은주	인문대	87	△이지현	사회대	98
△이호원	공대	97	△정수완	공대	95
△차선주	HPM	43	△천건희	가정대	81
△최영준	ACPMP	17	△최철민	법대	92
△황해선	AMP	67			

평생회비 - 일반					
△강영훈	공대	98	△강유화	ACAD	94
△강인식	자연대	72	△강창욱	미대	05
△고재방	인문대	77	△곽성진	공대	11
△곽대균	공대	67	△구명수	대학원	83
△권기병	사회대	94	△김경록	의대	96
△김경현	법대	99	△김기림	생활대	11
△김다해	사대	12	△김대진	경영대	01
△김도균	사회대	86	△김민경	사회대	10
△김민주	법대	05	△김범기	사대	66
△김병관	농대	76	△김석기	공대	15
△김수암	자연대	72	△김용업	자연대	17
△김은경	사회대	00	△김은지	보대원	19
△김정훈	공대	15	△김주현	간호대	73
△김준범	공대	14	△김지수	인문대	16
△김철순	농대	76	△김태영	농생대	11
△김태형	법대	99	△김현걸	공대	10
△김현섭	사대	10	△나종호	사회대	02
△나혜리	인문대	16	△남은정	음대	92
△노유섭	사대	72	△류정선	공대	78
△문상현	사회대	88	△문종홍	법대	15
△민병수	FIP	19	△민선애	사대	04
△박광민	경영대	76	△박동원	공대	75
△박민선	사회대	09	△박병관	공대	74
△박상우	인문대	17	△박상준	사회대	01
△박성호	사회대	16	△박연환	간호대	87
△박종민	의대	73	△박지민	보대원	19
△박지형	사회대	86	△박진우	의대	07
△박차림	사대	06	△박보원	공대	83
△박혜영	미대	76	△박호근	농대	75
△박효진	자연대	00	△박홍일	사대	60
△배삼미	의대	07	△배소욱	의대	06
△배윤미	미대	74	△변대호	문리대	71
△변세종	공대	93	△서태웅	사회대	90
△서현숙	약대	02	△석영미	농생대	04
△석현중	사회대	15	△설현욱	자유전공	16
△손우성	농생대	04	△손혜인	공대	96
△송석준	사회대	83	△송은지	자연대	93
△신동목	공대	80	△신용승	사회대	90
△심재연	자연대	16	△안재균	공대	14
△안정호	공대	87	△안호진	인문대	97
△양성희	사회대	83	△양시백	AMP	44
△양재덕	법대	60	△양준식	인문대	99
△염수열	BCP	19	△여지현	농생대	17
△염영섭	행대원	03	△오백록	의대	05
△오윤석	IFP	2	△오태구	자연대	16
△우준택	대학원	92	△우현기	문리대	67
△유용욱	사회대	74	△유창열	AIP	40
△윤경식	사대	74	△윤민수	사회대	04
△윤철희	대학원	89	△이강인	사대	71
△이강희	수의대	05	△이경섭	자연대	14
△이경진	농생대	14	△이규호	인문대	15
△이기성	공대	53	△이다인	사대	19
△이대수	사대	73	△이다식	공대	92
△이동현	사회대	96	△이민영	경영대	72
△이보혜	농생대	10	△이상호	AIP	8
△이석주	자연대	09	△이성철	자유전공	15
△이소연	음대	01	△이소영	공대	01
△이소영	음대원	18	△이수연	ABP	23
△이수정	국대원	20	△이승호	사회대	06
△이시중	문리대	67	△이영아	의대	98
△이은섭	미대	14	△이종훈	상대	67
△이창구	농대	56	△이창기	행대원	81
△이철수	인문대	81	△이창희	사회대	85
△이형상	사회대	87	△이혁중	경영대	88
△이현정	간호대	02	△이호성	자연대	77
△이호연	법대	59	△이화성	사대	81
△임대용	공대	76	△임수현	농생대	03
△임순택	대학원	83	△임정욱	수의대	82
△임지현	자연대	17	△장은희	인문대	11
△정익진	AHP	1	△장인길	공대	73
△장호진	공전원	20	△장홍근	사회대	81
△전명호</					

# 나를 키워준 것은 9할이 관악

추억의 창



**최의창**  
체육교육82-86  
모교 체육교육과 교수

강원도 사북이 고향이었던 나는, 인왕산 자락의 이모님 댁에서 서울 생활을 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빈곤했던 나에게 관악에서의 공부와 생활은 신세계 체험, 바로 그것이었다. 교내외에서의 시위는 일상사였고 휴강과 결강도 빈번했지만, 강의들은 그럭저럭 이루어졌고 나는 그것들로 안팎으로 비어있던 나를 채워나갔다. 시인 서정주는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라고 했던가?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나를 키운 건 9할이 관악”이라고.

관악에서의 배움은 행복이었다. 교양 수업도 즐거웠지만, 체육과였던지라 스포츠 실기수업이 가장 재미있었다. 축구와 육상은 대운동장에서, 하키는 경영대가 들어선 작은 운동장에서, 야구는 실내체육관 자리에서, 양궁은 학군

단 옆 간이운동장에서, 농구와 배구와 체조는 간이체육관에서, 테니스는 운동화를 누렇게 물들이던 클레이 코트에서 배웠다. 관악캠퍼스 곳곳의 운동장들을 구석구석 오가며 나는 이십대 초반을 진하게 짙게 즐겼다.

수업 이외에 테니스부, 수영부, 배구부에서 활동하였다. 아마추어로 여러 운동부에 동시 참여가 가능했던 것이 관악의 장점이었다. 테니스는 대학 2학년에 시작하였으나, 가장 열심을 다하여 대학원 때 B조 복식 우승의 영예도 맛보았다. 수영부에서는 대회에 나갈 실력까지는 못되었지만 모든 영법을 배울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가졌다. 배구부에서는 몇몇 4학년이 의기투합하여 대학배구대회에 여러 차례 참가하였고, 중위권 입상의 뿌듯함을 누릴 수 있었다.

대학 시절 배운 스포츠는 조지아대학 박사유학 시 수업 조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교양체육으로 배드민턴과 배구를 가르쳐 학비와 생활에 결정적 도움을 받았다. 유학생들과는



일러스트 김나은(디자인 4학년) 재학생

밤낮과 주말 없는 테니스 모임으로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달래며 체력과 우정을 쌓았다. 귀국 무렵에는 애틀랜타 교포들의 후원으로 주변 남부 여러 주의 대학들까지 참가하는 친선 테니스대회에도 참가하였다.

1982년 입학 당시 체육은 사회적으로 팔시반던 분야였다. 상전벽해라던가. 21세기 초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이 스포츠를 업신여기거나 천시하는가.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남녀노소 모두의 사랑을 받는 핵인싸 분야가 되었다. 관악의 교양체육은 수강 신청 시 광

택 재능이 필요한 최고 인기 수업이며, 50여 개 이상 되는 운동부는 넉넉한 회원들로 늘 북적인다. 타 대학에도 흔치 않은 치어리딩과 피겨스케이팅 동아리까지 있다.

“학창 시절에는 국·영·수로 살았는데, 중년 이후는 체·음·미로 살아요”라는 말이 유행이다. 체육활동에 대한 때늦은 관심과 재능을 발견하고 열심인 중년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왜 어렸을 때부터 배워두지 않았는지 만시지탄을 토로한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위

하여 스포츠가 최고의 매개체임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늦깎이 운동마니아로 회심하여 자기 생활의 8할을 스포츠로 채우며 행복을 만끽하는 중년이 지천이다.

부모가 반 팔자라는 말이 있다. 내게는 학교가 나머지 반 팔자였다. 일상에서 배웠다면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었을 스포츠들을 관악은 내게 공짜로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것을 밀천으로 이후의 내 인생을 한층 한층 쌓아나갈 수 있었다. 이쯤 되면 지금의 나를 키운 것은 9할이 관악임이 확실하지 않은가? 아니, 지금도 관악에서 녹봉을 받아 연명하고 있으니, 전부라고 해야 할까?

\*최 동문은 건국대를 거쳐 현재 모교 체육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스포츠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소설, 시, 미술, 음악, 영화, 건축 등 인문적 지혜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인문적 스포츠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다. 에세이 글쓰기를 선호하며 ‘한 장 글쓰기’, ‘스포츠 리터러시’, ‘스포츠 리터러시 에세이’ 등의 책들을 내었다.

# 동창 모임은 치매 예방약



**동문기고**  
**김인종**  
농업교육74-82  
모교 미주재단 국장

만나서 수다를 떨어라. 수다는 여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부부동반 모임에서 부인들이 모여 신나게 수다를 떨 때 남자들은 할 말이 없어 멀건히 앉아 있다. 이 기운 떨어진 남편들은 치매예방 ‘턱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수다는 대화와 사고 능력을 유지시킬 뿐 아니라, 얼굴 턱 근육을 움직여 주고 두뇌, 눈, 귀 등의 혈류를 개선하면서 뇌 인지능력 저하를 막아준다. 이런 수다뿐만 아니라, 각종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동창회’라는

“인지행동개선 예방약”을 처방해 본다. 유명 제약회사 바이오젠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각광받으며 출시됐던 아두헬름(Aduhelm)의 효능이 기대에 못미치면서 장밋빛 전망이던 이 회사의 주가는 두달 전까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이 약이 환자의 인지능력 저하를 막는 효과가 27% 정도 있다는 데이터 수집자료가 공개되면서 투자자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이 쏠리고 이 회사 주식이 상승세를 탔다.

당초 FDA가 승인했던 약효만큼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의약계는 이 약이 치료의 첫 시발점이 될 수 있고, 다른 약이나 치료법과 함께 할 때 그 효력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익할 것이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회의론자들은 이 약 사용자의 21%는 뇌가 빛는 부

작용을 경험했다는 데이터에서 아직 기다려 볼 시기가라고도 주장한다.

치매는 환자는 물론 그 가족들도 함께 힘들게 하는 질병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아직껏 획기적인 치료약이 없다. 우리는 치매, 노망으로 몽롱그려 부르지만 알츠하이머와 디멘시아(dementia)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노인 치매 증상이다.

확실한 것은 이 치매 증상이 외부적으로 발현되기까지 약 20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70세에 치매가 왔다면 50세부터 뇌의 저 구석에서 아주 조그맣게 천천히 시작됐다는 것이다. 즉 인지 행동기능의 저하가 20여 년에 걸쳐 진행되는 결과가 치매이다.

치매는 최소한 발병 예상 20년 전부터 예방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치매 예방에 대한 연방보건국의 8가지 원칙은 정상혈압유지, 혈당관리, 적절한 체중 유지, 운동, 금연, 과음 금지, 청각 상실 방지, 충분한 수면 등이다. 모두 당연

히 지키고 싶은 원론적인 이슈이다. 다만 지키고 싶어도 유전, 환경 등으로 못 지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그런 제약을 벗어나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예방약의 하나가 ‘동창회 참석’이라는 것이다(어려운 말로 인지행동치료에서 나온 학설이라면 신뢰를 더 할 분들이 계실 것이다). 동창회는 단순한 자리 채우기 뿐만 아니라 ‘봉사와 희생’이라는 행동양식을 첨가함으로써 인지기능의 숨은 부분을 활성화 하고 개발해 준다. 그 소득은 ‘보람과 깨달음’으로써 ‘웃음’이나 ‘기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엔도르핀이나 건강 촉진 호르몬을 신체에 제공하게 된다. 보람, 희생 등의 행동양식을 통해 개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큰 활력, 활성화 화를 느낄 수 있는 호르몬 분비를 경험하게 된다. 웃음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의식 고양’이다. 동창회에 각종 사교 모임을 찾아 등산을 가고, 바둑을 두고, 함께

영화를 보고, 골프를 치고, 여행을 다니거나 에어로빅 모임에 참여하는 기회로 삼는다. 어떤 동창회에는 탱고 왈츠 춤교실도 있는데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한 모임이다.

이같은 자기 만족 활동에 추가해서 봉사, 희생, 베품의 활동에 나선다는 것이 동창회 참석을 통한 치매예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같은 활동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이고 동창회는 이런 활발한 대인 관계와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커뮤니티로 ‘치매 예방약’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삶어!’ ‘안 할래!’를 많이 말할수록 치매에 가까이 가 있다는 증상이라고 의사들은 진단한다. 동창회 참석이 ‘좋아!’ ‘할래!’ 가 되도록 구성원들이 서로 노력하고 봉사와 희생을 한다면 동창회는 ‘인지능력 기능저하를 예방’하는 좋은 예방약이 될 수 있다. 오피니언이라기보다는 이론(theory)이다.

## IEEE DiscoveryPoint Communications(IDPC)

**IEEE가 만든 첨단 통신산업 R&D를 위한 All-in-One Platform**

Trial가능. 이희진 과장 hjlee@kitis.co.kr  
문의 02-3474-5290 김은진 대리 ejkim@kitis.co.kr

**IEEE**

**Authorized Dealer**

**키티스 産學研情報(株)**  
KITIS Info. & Co., Ltd.  
대표 홍영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중신이사)

관악논단

# 독박육아·유리천장...저출산 부추기는 불평등



**은기수**  
사회81-85  
모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인구학회 회장

2023년 새해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력과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위기를 넘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다. 현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은 모두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위기와 깊이 연관돼 있다.

저출산으로 초래된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인 동시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다. 인구위기가 사회 곳곳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수준을 넘어 안보 위기로까지 번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만 0세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정책도 도입된다. 현금지원뿐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에게 전일제 돌봄을 제공하며, 외국에서 실행 중인 거의 모든 선진적인 자녀양육 및 돌봄 정책을 도입, 실행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천문학적 예산을 들이고 수많은 선진정책을 모두 도입, 실행해도 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고, 출산력은 계속 낮아만 지는 것일까. 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이 계속되는 것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조선시대 이래 이어지는 전근대적 유교 인식이 '문화적 전통'이 되어 출생, 교육, 돌봄, 주거, 노동시장 등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한국 사회는 결혼을 통해 꾸려진 '정상 가정'에서 출생한 아이만 '정상

인'으로 취급받는다. 신유교주의에서 배태된 문화적 전통의 하나인 '정통성'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정통적'인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규범이 작동하는 것이다. 누구나 결혼해야 가족을 이룰 수 있고, 결혼한 사람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성, 가족, 출산의 '정통성'의 신유교주의 유산이 강력한 문화적 전통으로 작동하면서 출산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둘째, 과거 급제를 통해 양반 신분을 유지했던 사회적 관습이 학력 경쟁의 형태로 오늘날까지 계속돼 막대한 자녀교육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오늘날 근대

## 전통적 유교 윤리, 출산에 악영향 성차별·혼외 자녀에 인식 바뀌어야

한국 사회에서도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부모보다 더 높은 계층으로 상향 이동시키기 위해 천문학적 교육비용을 지출한다. 여전히 모든 개인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추구하여, 대학은 이미 대중교육이 되었고, 대학원 혹은 외국 유학이 선택사항으로 남아 있다.

이런 높은 교육수준을 배경으로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안정적인 전문직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것이 현대 한국 사회의 부모와 자녀의 공통된 바람이다. 실상 전통시대의 양반의 삶과 다르지 않다. 2022년에 OECD가 지적한, 소위 한국사회의 '골든 티켓(Golden Ticket)'은 '현대판 양반되기'에 다름 아니다.

최고 수준의 교육을 마쳐도 노동시장에 진입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20~30대 청년들의 55%가 몰려있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거주할 공간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거의 전쟁 수준으로 치열하게 살아도 부족하다. 현실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맹목적 학력 경쟁을 통한 신분 상승과 이에 대한 인식 및 욕구는 변하지 않았다.

셋째, 여전히 후진적인 성평등의식이 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잔존해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등 신유교적 문화 전통의 뿌리가 깊은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에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와 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이 당연시되고 있다. 가정에선 '독박육아'라는 신조어에서 알 수 있듯 자녀 양육 및 돌봄의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돼 있으며, 정치 등 공적인 영역에서도 단단한 '유리천장'은 여전히 있다. 성불평등 및 성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돌보면서, 원하는 일을 병행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아니, 믿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조선시대 이래 신유교적 문화적 전통은 현대 한국인의 삶에 여전히 깊이 뿌리내려, '정상 가정'에서의 출산, 무조건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추구, 수도권 집중, 성차별적 노동시장, 불평등한 가사노동분업 등 불합리한 사회구조 및 인식을 온존시키고, 한국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니 초근대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도 맥을 못 쓸 수밖에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 근대적인 출산, 성평등, 가족 정책이 전근대적인 문화적 전통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전통적 근대 한국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경우도 많지만, 글로벌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근대 사회로 이행하려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열리고,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

느티나무칼럼

# 승자독식 정치 바꾸는 길



**김희원**  
인류89-93  
한국일보 논설위원  
본지 논설위원

신년 초부터 언론들은 기획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적 양극화가 얼마나 극심한지, 국민들이 얼마나 분열돼 있는지를 짚었다. 정치 성향이 다르면 식사자리까지 불편해 하는 이들이 꽤 많다는 조사도 보도됐다.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인지, 야당인지 그조차 팽팽하게 맞섰다.

오래 그런 것이라고 넘기기엔 정도가 심각하다. 2021년 10월 퓨리서치센터가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대통령이 꺼낸 중대선거구제 정치체질 개선에 자극제되길' 하는 사람들이 이에 갈등이 심하거나 매우 심하다'는 응답률이 한국 90%로 가장 높았다(17개국 평균 50%). 2022년 12월 19개 선진국 조사에선 'SNS가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응답이 77%로 미국(79%) 네덜란드(78%)에 이어 3번째였다(평균 65%).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할 만큼 국민 분열이 심해진 이유는 복합적이다. 위 조사가 말하듯 SNS의 영향도 분명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정치보복성 수사도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는 선거제도다. 소선거구제에 따라 오직 1등 득표자만 뽑는 현행 제도에선 비례대표(47명)를 제외하면 당선 기회를 거대 양당이 독점한다.

지역에 따라선 공천이 당선을 결정한다. 소수자를 대변하거나 혁신적인 제3당이 국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거대 양당은 경쟁도 타협도 필요 없고 '누가 더 혐오할 대상인가'를 견주면서 권력을 주고받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전 국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선거법을 개정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의 반영이었다. 여간해선 국회의원들이 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데도 비례의석이나 제3당에 유리한 제도를 만든 것은 표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결국 위성정당 편법으로 이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 것도 거대 양당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선거법 개정이 화두가 됐다. 안 그래도 선거법 개정은 총선 1년 전, 즉 4월까지 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의 발언 덕에 여당 반응은 호의적이고, 여야의원들이 뜻을 함께 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도 있으며, 학계와 시민들의 헌법·선거법 개정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선거구제 하나만 바꾼다고 정치 체질이 쇠신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적대적인 승자독식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바꾸는 것이 과연 옳을까. 소수 정당이 등장한다고 곧 정권을 잡는 것은 아니나 기존 정치를 변화시키는 자극제가 될 수는 있다. 그 첫걸음을 떼기를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

## 대통령이 꺼낸 중대선거구제 정치체질 개선에 자극제되길

서울대 총동창신문

발행인 김종섭	편집인 이경형	편집장 김남주	기자 나경태·박수진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이메일 news@snu.ac.kr
편집디자인 Sac design	인쇄 중앙일보		

\*칼럼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듀오 결혼정보업계 1위  
(2021년 매출액 기준)

대표이사 박수경 [84인 소비자학과]

# 결혼해 듀오

돌아온 일상 기다려온 설렘  
그리고 지금 내게 온 당신

한국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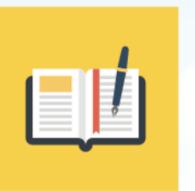
1577  
8333

결혼정보업 신고번호: 강남 080031

# 함께 나아가는 이름다운 동행

소중한 나눔의 씨앗이 관악의 꿈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나눔의 정신을 소중히 되새기며 정성으로 마련한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장학빌딩 얼굴부조, 이름각인	건강검진비 지원	장학금 명칭 부여, 가업승계·세무금융 컨설팅	상조서비스 지원	감사패, 기념물품 발송	역사연구기록관 기재	주요행사 초청

예우내용		1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장학 빌딩	얼굴부조	✓				
	이름각인	✓	✓	✓	✓	
장학금 명칭 부여		✓	✓	✓		
건강검진비 지원		✓	✓			
가업승계 컨설팅 제공		✓	✓			
세무금융컨설팅 제공		✓	✓	✓		
상조서비스 지원		✓	✓	✓	✓	
감사패		✓	✓	✓	✓	
기념물품 발송		✓	✓	✓	✓	✓
역사연구기록관 기재		✓	✓	✓	✓	✓
주요행사 초청		✓	✓	✓	✓	✓

장학금 명칭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천만원 이상 기부자 의사를 반영한 장학생 선정 가능</li> </ul>
건강검진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검진 예약 및 비용 지원</li> <li>10억원 이상 : 평생   5억원 이상 : 5회   1억원 이상 : 1회</li> <li>* 지원병원 : 서울대병원 본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분당서울대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국립암센터, 차병원 청담병원</li> </ul>
가업승계 컨설팅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억원 이상 1:1 무료 자산관리 플랫폼 컨설팅 제공</li> </ul>
세무금융 컨설팅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천만원 이상 자산설계, 상속세, 증여세 등 세무관련 컨설팅 제공</li> </ul>
상조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억원 이상 : 장례차량, 관, 수의, 장례도우미, 묘비건립, 자서전 발간, 근조기, 화환(영정바구니), 일회용품 등</li> <li>1억원 이상 : 근조기, 화환(영정바구니), 일회용품, 묘비건립 등</li> <li>1천만원 이상 : 근조기, 화환(영정바구니), 일회용품 등</li> </ul>

※ 기부 및 예우 프로그램은 기부금 납입 기준에 의해 적용됩니다.

※ (재)관악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출연해주는 기부금에 대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참여 안내

- 무통장 입금**
  - \* 장학금 기부금 : 신한 140-006-909438 / 우리 1005-202-771270 / 농협 069-01-272391
  - \* 사회공헌사업 기부금 : 신한 140-013-437837
  - 예금주 : 재단법인 관악회 (※ 송금인란에 기부자 성명, 입학연도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 \* 은행계좌, 신용카드 모두 가능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 팩스, 이메일,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재단법인 관악회**  
서울대학교총동창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940동 415호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T 02-879-8288  
F 02-703-0755 | M 010-4212-0755 (문자수신전용) | E scholarship@snu.ac.kr H www.snu.ac.kr